



# 금강산

8

주제 103(2014)  
루체 제300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14 ISSN 1727-9062

#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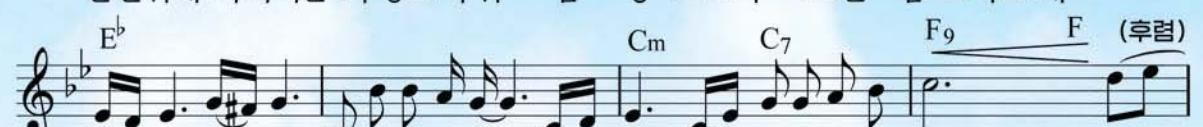
서정적으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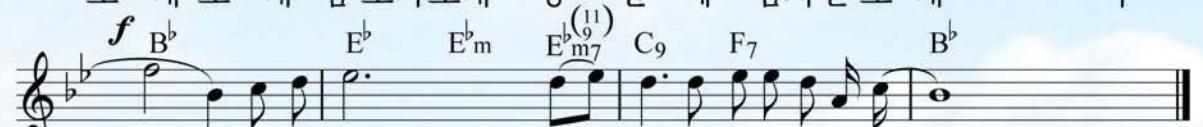
1. 희망찬내 - 나라 조국강산에 - 울려 퍼지네 - 원수님노래 -



인민위해 바치시는 사랑고마워 - 심 - 장 으로부- 르는 흠토의노래 -



노-래 노-래 흠토의노래- 강- 산 에- 넘치는노 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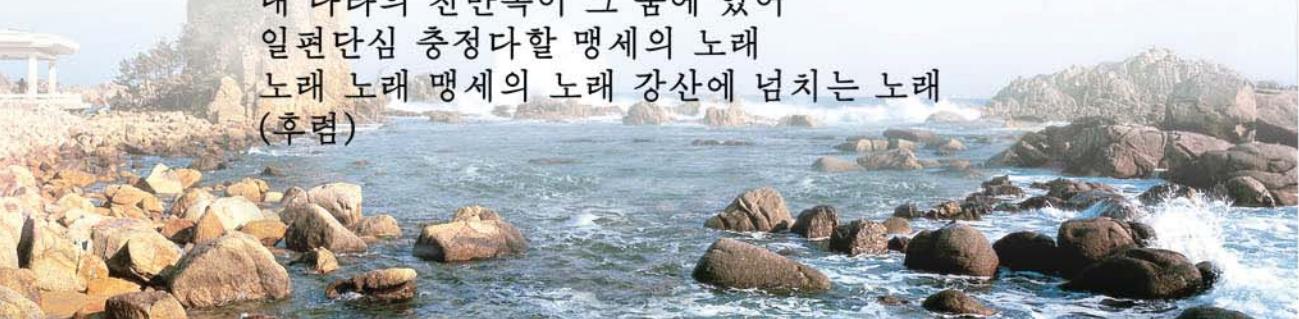


우리의 김 - 정 은 원수님노래 -

2. 집집의 뜨락에서 이 땅 끝까지  
끌이 없어라 원수님 노래  
초소찾아 일터찾아 가시는 길에  
그이 안녕을 바라는 축원의 노래  
노래 노래 축원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 노래  
(후렴)

3. 천하의 제일강국 세워주시는  
원수님 받들 오직 한 생각  
내 나라의 천만복이 그 품에 있어  
일편단심 충정다할 맹세의 노래  
노래 노래 맹세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 노래  
(후렴)

작사 김형찬  
작곡 리명남



## 차례

천하의 기하늘이 이룩한 민족해방의 업	3
마두산혁명전적지가 전하는 이야기	5
선군, 그 길에 조국의 래일이 마중온다	8
반향	
민족을 지키는 보검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b>3부통합</b>	10
개선문	12
수기	
태양은 마음속에 찬연하고 우정은 천하를 밝힌다	14
여 많은 어린이식료품을	16
기적창조의 출발열쇠	18
끌맞지 못한 최재	19
백호네 세형제	22
<b>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과 그 주인공들</b>	23
금통을 통관에서 만난 사람들	26
날로 발전하는 민족료리	28
모녀버섯박사	30
어디서나 일고 있는 수영바람	32
동포들의 지성이 깃든 연구소	34
<b>애국과 청춘</b>	36
편지	
잔촌어머니에게	37
조국의 품에 안겨	
그네식기중기의 창안제작자 최성천	38



<b>씨앗과 열매</b>	40
수 기	
나는 조선청년이다	42
고국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43
민족료리발전에 기여하겠다	44
인상기	
다시 해여날수 있다면	45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을것이다	45
교국방문	
걸지 않은 나날이였어도	46
사화	
스승을 감복시킨 제자	49
민족의 향기	
옛이야기를 통해 본 바둑의 매력	50
우리 나라의 산줄기들	52
야화	
플라도에서 있은 무과과거시험	53
왕성탄을 지킨 박다지	54
과연 미국이 『인권재판관』 인가	55
누가 기해진이고 누가 피해진인가	56
상식	
조선기와	33
소금, 사탕, 알콜의 해를 줄이는 방법	35
『조보』	50
조선속담 (허황정)	39
유모아	
귀가 서로 통하다	53



# 선군의 기회들이 이룩한 민족해방의 업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함께 우리가 평양의 개선문광장을 찾았을 때였다. 광장에 들어선 동포들은 그곳에 있는 모자이크벽화앞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뗄 수 없었다. 벽화에는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를 열광적으로 터치는 인민들의 모습이 형상되어 있었다. 동포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아마도 해방을 맞이했던 당시 겨레의 심정을 그려보는 듯…

주체34(1945)년 8월 15일, 실로 그날은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독립만세 우뢰소리에 동해가 끊고 산이 동한 날이였고 조선의 기상과 혈맥이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한 날이였다.

돌이켜보면 1905년 일제의 강요에 의해 날조된 『을사5조약』과 더불어 나라를 통제로 빼앗기고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뼈아프게 절감한 우리 민족이였다. 민족의 운명을 지켜줄 총대가 없고 민족을 이끌어줄 영도자가 없었던 탓에 온갖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아오면서도 그 어디에 가 하소연 할 곳조차 없던 우리 겨레였다.

바로 그러한 민족이 운명전환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그이의 선군혁명령사의 첫 기슭에 새겨진 사연들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주체21(1932)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도현 소사하 토기점골등판에서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후 적들과의 소영자령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이 선군의 위력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민족해방위업을 이루 할 수 있는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게 하였다면 소영자령전투는 군대가 조직되어 총을 들었으면 그 총은 발사되어야 하고 발사되었으면 반드시 적을 소멸해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혁사

에 새기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대를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시키시고 부대를 질량적으로 급속히 확대강화하며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시고 유격대의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끌어세우시기 위하여 남만원정을 떠나시였다. 이어 또다시 북만에로의 길에 오르시였다.

참으로 간고한 행군이였다. 적들은 사방에서 조여들었고 혹독한 추위와 허리를 치는 눈이 대오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힘들게 저축하였던 식량도 바닥이 났고 군복마저 다 찢기고 터져 맨살이 드러났다. 유격대가 조직되어 처음으로 겪는 시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라자구등판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시였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 것인가, 파연 우리의 대오가 황량한 이 등판에서 전진을 멈추고 마는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마음은 무척 무거우시였다. 하지만 선군으로 기어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비상한 책임감이 그이의 심장을 쾅쾅 두드렸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불굴의 자각이 그이께 선군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더해주며 항일의 기발을 더욱 높이 추켜들게 하였다.

혁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그이의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된 안도의 토기점골등판으로부터 남만원정과 북만원정, 고난의 행군과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 이르기까지 그이께서 헤쳐오신 길은 참으로 엄혹한 시련 속에서 선군의 기치를 고수한 준엄한 투쟁행로였다. 항일전쟁은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악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백만대군을 상대로 벌린 결사전이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이역

의 바람세찬 광야에 묻고 설음에 우는 동생들과 아픈 마음속에 리별하지 않으면 안되지였다. 그리고 총대로 조국의 해방을 기어이 안아오자고 함께 맹세다진 동지들을 잊고 밀림속 우등불가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피로움을 역누르시고 더욱 억세게 총대를 틀어주시였다. 그 총대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거듭되는 적들과의 싸움을 벌리시며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 대마록구전투, 홍기하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조직진행하시였다. 그 나날 수령님께서는 령활한 군사전략과 신묘한 전술로 싸움터들마다에서 승전의 개가를 높이 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언제나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선군의 기치아래 굳게 끓여세우시고 최후결전의 시각 전민항쟁에 떨쳐나서도록 승리에 대한 신심과 의지를 북돋아주시였다.

주체34(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항일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총진군하자!》

그이의 총공격명령은 조국해방작전을 갈망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심장에 멀적의 불을 달아주었다. 혁명군부대들은 일제히 최후결전을 개시하였으며 나라의 곳곳에서 전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혁명군의 드세찬 공격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반일항전에 의하여 적들의 지탱점들은 여지없이 격파되었다.

일제는 주체34(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비로소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고 조국해방, 민족해방의 역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민족해방위업의 승리는 곧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도의 승리였다. 그이의 선군혁명도는 그이의 선군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선군사상의 시원은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

으리라는 맹세를 다지시며 나라찾을 싸움의 길에 오르신 그이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주체15(1926)년 10월에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의 강령에 있다.

그이께서는 각양각색의 주의주장이 범람하고 사대와 교조가 판을 치던 복잡다단한 시기 마침내 주체19(1930)년 6월말-7월초 카툰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여 독창적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였다.

선군사상은 혁명투쟁에서 총대를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군사를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사상이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군대의 주도적역할에 의거하여 혁명운동을 추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ㄷ》의 강령으로 내세우시였던 제국주의를 타도할데 대한 사상의 완성이였으며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올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장을 들고 싸우는 길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의 정화였다. 바로 이 사상을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장장 스무해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항일의 날 출기찬 무장투쟁을 벌리시여 끝끝내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

개선문광장을 찾은 동포들은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그들은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날이 있어 이 땅우에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꽂혀나게 되였고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불폐의 사회주의조국이 일떠서게 되였다는것을 절감하고있었다.

동포들은 송엄한 감정을 안고 오늘도 수령님의 력사, 선군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는 조국, 선군으로 존엄멸치는 조국의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고 또 보았다.

선군사상의 시원은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

# 마두산혁명전적지가 전하는 이야기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는 조국인민들의 흐름이 끊길줄 모른다.

전적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설되었던 안주지구비밀근거지 밀영들중의 하나이다. 안주지구비밀근거지는 주체27(1938)년에 마두산밀영, 상산밀영, 전산밀영, 특맥산밀영들로 꾸려진 후 최후공격작전시기에는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게 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었다.

안주일대에서 제일 높은 산

인 마두산에 자리잡고있는 마두산혁명전적지는 조국해방작전수행의 중요활동거점으로서 안주지구비밀근거지밀영망들중

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밀영이였다.

마두산은 그 모양이 말의 대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그런 이름으로 불리운다.

안주지구비밀근거지에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소중히 어려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1930년대말 적들의 중요한 군사전략적보루였던 안주지구를 장악하실 구상을 펼치시였다.

당시 안주지구는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막혀있어 적들의 공격을 막는데 유리하였고 많은 광산들이 있어 로동자들을 항일

전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또한 이 일대는 높은 산발을 통해 백두산으로 드나들기 유리하고 평양을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나가는데 편리하였으며 벌을 이용하여 식량저축도 할수 있었고 철도와 도로망을 끼고있어 활동하기에도 좋았다. 때문에 비밀근거지가 자리잡은 곳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이 개시되면 적들에게 타격을 안길수 있는 공격에 아주 적합한 천험의 보루였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구상하신 전략전술적의도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

숙영지자리 (주체103(2014)년 2월 촬영)



본사기자 홍정혁

명가들, 인민들은 그이의 뜻대로 최후결전시기에는 안주지구를 사령부가 위치할 강력한 보루로 꾸려놓았다.

마두산밀영을 비롯한 안주지구비밀근거지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나라 서부일대의 지역적령도거점, 중요한 군사작전기지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전적지에서 류달리 많은 구호문헌들이 발굴되였으며 그 내용과 형식, 사상적폭과 깊이도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안주지구비밀근거지에 얼마나 많은 구호문헌들이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당시 일제는 이 지구의 산들에 혁명적인 구호가 새겨진 나무들이 많은것을 두려워하였다. 구호나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자 발편잠을 할수 없었던 일제는 그것을 찍어버리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생각끝에 일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

다가 글자가 씌여져있는 나무를 보게 되면 글자를 도끼로 깎아오라, 그렇게 하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바꾸어주겠다고 열리였다.

혁명조직성원들에 의하여 전후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산에 올라 여느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거기서 나무쪼각을 깎아다 일제경찰들에게 바치였다. 그들은 그것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발, 학습장을 비롯한 물건들을 주군하였다.

일제가 생각해낸 《묘안》이라는것은 결국 이 지구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쉽게 생활필수품들을 얻을수 있게 하여준 묘안이였다. 이렇게 되여 이 지구의 산들에는 도끼자리가 난 나

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였다.

마두산밀영에서는 51점의 구호문헌들이 발굴되였으며 그중에서 백두산3대장군을 칭송한 구호문헌은 10여점이나 된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항일령수 김대장 만세》, 《조선 만세》,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천출천하명인 김일성장군 백두녀장 김정숙 그들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조선의 3대통운 만세》, 《녀성해방 만세》와 같은 대원수님을 칭송한 구호문헌들과 신념의 구호문헌, 백두산3대장군을 칭송한 구호문헌, 당시의 사회적불평등을 반영한 구호문헌 등이 있다. 그리고 바위에 새긴 구호문헌들도 있고 여러 기호와 부호들이 새겨진 구호문헌들도 있다.

이밖에도 전적지에는 구호문헌보존실과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성원들이 리용하던 샘물터며 숙영지자리 등 유적들과 유물들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업적과 관련한 귀중한 역사적사실을 간직하고있으면서도 그리 소문나지 않았던 마두산혁명전적지는 지난 1월 하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찾아오신 때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는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귀중한 철리를 조국인민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주체103(2014)년 2월 촬영)

전적지에 있는 구호문헌들의 일부 (주체103(2014)년 2월 촬영)



# 선군, 그 길에 조국의 래일이 마중온다

선군은 곧 조선을 의미한다. 그것은 선군을 떠나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은 물론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한세기 전만 하여도 망국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이였다.

예로부터 조선은 지정학적 위치로 하여 혈강들이 탐내는 땅으로 되였고 삼천리강토는 그들이 세력권다툼을 하는 각축전마당으로 되였다. 하기에 유럽의 한 유명한 미술가는 당시 자기의 그림에서 조선을 혈강들이 드리운 낚시에 물려 몸부림치는 물고기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어제날 힘이 없어 몸부림쳐야만 했던 약소국으로부터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위력한 나라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이으신 분, 그이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주체 49(1960)년 8월 25일, 바로 그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하여오신 신조였고 방식이였으며 실천이였기에 조국인민은 8월 25일을 선군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조국의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심으로써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혁사와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수십성상 오로지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회고하시며 사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나의 가슴은 헝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봐야 한다고,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것을 이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불태우신 장군님이시기에 야전식사, 야전리발, 야전솜옷, 쪽잠과 쇠기밥과 같은 무수한 일화를 남기시며 멀고 험한 전선길을 웃으며 헤쳐가실수 있었던것이다.

8월 25일, 그날과 더불어 장군님께서 한평생 쌓아올리신 선군혁명령도업적이 그토록 위대하고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혁사의 기념비마냥 새겨져있기에 선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시울을 적시며 장군님을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오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주체 101(2012)년 새해의 첫 걸음, 조국파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내짚으신 첫 걸음을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 땅크사단을 찾으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해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혁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길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끝없이 이어져있다.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길에서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의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지고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위력을 지니게 되였다.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국방력을 갖추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치렬한 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있으며 강성국가건설장들마다에서도 선군조선의 새 모습을 펼쳐보이고있다.

선군의 기치가 높이 휘날리는 조국땅 그 어디

반향

# 민족을 지키는 보검

남녘겨레는 선군정치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보검으로, 만복의 정치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치야말로 위대하고 활력있는 정치이다. 그 분은 실로 혁사상 처음으로 군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으신 천재적령장이시며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가이시였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남녘겨레들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며 번영을 담보해줄 가장 옳바른 정치방식에 대한 해답을 위대한 선군정치에서 찾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홈페이지에는 『… 세계는 북의 선군정치를 두고 <한 민족만이 아닌 전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만복의 정치>로 찬양하고 있다. 나는 심장으로 웨치고 싶다. 그대가 누구이든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선군정치를 따르고 받들라.』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인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등의 글들이 계속 실리여 내외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북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 합세의 정치, 군사, 외교적압력을 선군정치로 단호히

를 둘러보아도 약동하는 짙음으로 비약하는 모습이 안겨온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가는 꽃마다 선경이 펼쳐져 인민들이 심장으로 웨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또한 우렁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분쇄하신 김정일장군님의 공적은 세계력사에 특기할 무훈이다. 세계는 김정일장군님과 같이 련합하여 달려드는 대적의 포위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쥐시고 총성 한번 울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제압하신 령장을 알지 못한다.』

남조선의 한 주민이 동료들에게 한 이 말속에는 위대한 선군정치에 매혹되고 선군의 위력과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는 남녘겨레들의 동경의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다.

하기에 그들은 『정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아니였다면 조선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전란에 잠겼을 것이다.』, 『이북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고마운 정치인가. 그 선군정치덕에 우리 이남민중도 평온을 누리고있다. 민족의 안녕과 존엄을 지키고 번영의 길을 여는 선군정치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싶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잡지 『말』은 『선군정치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면 선군정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에 대한 방문으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것은 반제군사전선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해왔음을 말해주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로 난관에 부딪친 현시대에 어떤 사회적집단을 앞세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강한 힘은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위력한 집단인 인민군대에서 나온다는것, 이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찾으신 해답이였다.』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국력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을 결정하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국력의 첫째가는 징표는 강한 군사를 가지는것이며 그것은 탁월하고 세련된 혁군술과 지략을 지닌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며 조국통일의 새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고 확신하고있다.

\* \* \*

은 물론이고 즐거운 야영소들에 넘쳐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렇다. 선군은 곧 우리의 조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의 넓은 길을 따라 조국의 행복한 래일이 마중오고있다.

본사기자 연 옥

## 3부 통합

(전호에서 계속)

그러나 독립군의 지휘관들은 싸우려 떠나기는 커녕 무기를 모아다 창고에 감추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가면 장부책 같은것을 펴놓고 무슨 일을 하는척 하였다. 젊은이들한테 전달군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눈치돌음을 하는것이었다.

어떤 날은 그들이 주먹이나 목침으로 책상을 꽁꽁 내리치며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상우들을 퍼붓기도 하였다. 3부가 통합을 한 다음 어느 과가 실권을 쥐겠는가 하는것이 기본문제였다. 그들은 자기 과가 활동년한도 더 오래고 업적도 더 크다거나, 자기 과가 관할하는 구역이 더 넓고 군중도 더 많다느니 하면서 제가끔 자기 과를 내세우고 다른 과를 깎아내리였다.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밤새껏 주정질을 하다가 다음날 한낮때가 되여서야 일어나군 하였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태풍합정미소에 갔다가 거기서 상해림시정부 재정부장이라는 사람과 론쟁을 하였다.

그는 자기네 동료 몇 사람을 데리고 길림에 와서 몇 달째 3부통합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가 청년들과 어울려 장난도 잘하고 진보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도 자주 하므로 우리도 그를 만나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속에 있는 소리를 꺼리낌없이 터놓군 하였다.

그날 우리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해림시정부를 좀 비판하였다. 당신네들은 나라도 민족도 안중에 없이 백성이야 어떻게 돼가든 외국에 쫓겨와서까지 제가끔 한자리 해먹겠다고 싸움질만 하며 돌아가는데 그리고도 애국에 대해서 감히 말할수 있는가, 여기서 벼슬을 한대야 촌에 나가서 농사하는 집 몇집을 상대로 군자금을 거두며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인데 그런 권력다툼은 해서 뭘하겠는가고 우리 청년들 몇이 둘러앉아 막 공격을 들이댔다.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정당한 충고에 말문이 막혀 짤짤매다가 자기를 모욕한다고 노발대발해서 우리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해? 그래, 옳다. 너희들만 잘나고 우리는 못났다. 그럴 바에는 나나 너희들이나 다같이 실컷 망신을 당해보자.》

그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옷을 와락와락 벗어내치였다. 벌거벗고 거리바닥에 나가 뛰여다니면서 조선사람망신을 시키겠다는것이였다. 자기가 모욕을 당했으니 그대신 민족을 망신시키는것으로 앙갚음을 하겠다는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난생처음 보았다. 간판은 림시정부 부장인데 소행을 보면 무뢰한이고 망나니였다. 그가 정미소담장밖으로 나가는 날이면 야단이였다. 재정부장의 망신이자 우리의 망신이고 조선사람의 망신이였다. 그래서 그를 겨우 진정시켜 옷을 주어입혔다.

우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하였다. 자기네를 비판하였다고 알몸뚱이바람으로 거리바닥에 뛰여나가려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배꼽을 드리내놓고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나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꼴이니 그게 무슨 정치인인가.

이 사람이 상해림시정부 망신을 다 시키였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는 상해림시정부를 끊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파쟁을 한다고 끊지 않게 보았고 구걸외교에 매달린다고 끊지 않게 보았으며 군자금을 탕진하며 무위도식한다고 끊지 않게 보았다. 림시정부는 인두세와 구국의무금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공채까지 발행하고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개는 어느 도의 관찰사, 아무개는 어느 군의 군수, 아무개는 어느 면의 면장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라는것을 주고 그 직함에 따라 해당한 금품을 받아들이는 매판매직까지 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이 통합을 이루하지 못하고 파벌싸움을 계속하고있는 사이에 일제는 그들속에 주구들을 박아넣어 반일독립운동자들을 손쉽게 불잡아갔다. 가장 가슴아픈 손실은 오동진이 체포된 것이였다. 일제경찰은 주구 김종원을 시켜 조선의 큰 금광주 최창학이 장춘에 와있으니 그와 교섭하면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오동진을 유인해내여 장춘부근 홍릉산역에서 체포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얼마동안 밥맛을 잃어버리다싶이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후 오동진의 아들 오경

천이 길림영화관에 구경을 갔다가 화재사고로 죽었다. 내가 불속에 뛰어들어가서 업어내오기는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다. 남편이 감옥에 잡혀가고 아들까지 잘못된후 오동진의 부인은 고민끝에 정신이상에 걸리고말았다. 우리가 가서 위로도 하고 병구완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부인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오동진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정투쟁을 한창 벌리고있을 때 한쪽에서는 3부통합을 한다고 매일같이 모여앉아 술추첨이나 하면서 세력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니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이 좋을수가 없었다.

오동진의 체포에서 맛을 들인 일제경찰은 더 많은 반일운동자들을 불들어가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쳤다.

그래도 3부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말공부질만 계속하였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바지 가랭이에 모래를 넣고 정미소울타리안을 왔다갔다하면서 달리기훈련을 하는것이였다.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이 눈앞에 박두하고 조국의 운명도 날을 따라 더 암담해만 가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다 못해 우리는 오동진사령의 체포를 통해 선생님들이 크게 깨달은바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웨놈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를있는 반일운동자들을 하나하나 체포하여 처형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직도 여기에 모여앉아 회의만 하고있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만과 북만, 동만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조선사람모두가 단결을 이루하도록 하루속히 3부통합을 성사시켜 주기 바랍니다 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3부의 지도자들은 그후에도 계속 싸움질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때의 조바심파 안타까움이란 실로 혼연할수 없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파벌싸움에만 미쳐돌아가고있는데 그나마 얼마간의 무장력을 쥐고있는 민족주의자들마저 그런 형편이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우리는 생각다 못해 그들에게 좀 더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연극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는 《3인1당》이다.

준비가 다된후 내가 가서 3부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을 위해 우리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곤도 푸실험 한번 와보라고 하니 그들은 다들 좋아하면서 손정도네 례배당으로 찾아왔다.

노래와 춤을 비롯한 몇 가지 종목들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처음에는 그 령감들이 연극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세사람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연극의 내용이 자기네들을 풍자한것임을 알아채고는 얼굴들이 시뻘개져서 《나쁜놈들, 우리를 감히 모욕해? 저 성주가 아주 못쓰게 됐다.》고 하면서 달아나버리였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찌기 그들한테 찾아가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어제 저녁에 선생님들은 왜 공연도중에 가시였습니까? 연극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령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제 저녁 우리를 뭐라고 유했는가고 나에게 대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하였다.

《선생님들, 무엇이 그렇게 노엽습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기에 우리도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연극은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있는지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리정연한 말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였다.

그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정의부의 잔류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심룡준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였다.

정의부의 탈퇴파와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는 따로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각파의 지도자들은 국민부의 지붕밑에 들어와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땀땀을 꾸었다.

민족주의전영의 보수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파벌싸움을 하다가 종말을 고하였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낸것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확고부동한 결심이 없었기때문이였다.

력사는 바야흐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세대교체를 미룰수 없는 과정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이 세대교체를 감당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끝)



## 개 선 문

연분홍빛 노을을 향해 받으며 웅장하게 서있는 개선문은 볼수록 장관이다. 김일성경기장으로부터 저 멀리로 보이는 천리마동상과 창전거리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이는 북새지구는 개선문의 아름다움을 한껏 부각시켜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1925》와 《1945》라는 글발이 새겨진 개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세세년년 전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 춘

# 태양은 마음속에 찬연하고 우정은 천하를 밝힌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

어느덧 스무해가 흘렀다.

인류의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을 회고하여 봇을 듣 내 나이 돌아보니 어언 여든한번째 년륜이 감겨있다.

세월의 류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더욱 실어오고 있다. 이미 몇건의 글을 세상에 냈건만 장율화렬사의 아들로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큰아버님으로 모신 나로서는 아직도 력사앞에 할바를 다 못하였다 생각에 또다시 봇을 들게 되었다.

이 하늘아래 살아숨쉬는 한 나만이 아니라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에 이르는 우리 가문의 후대들에게는 김일성주석님과 장율화렬사의 우정과 의리의 세계, 세상에 다시없을 그 특출한 교우와 교분에 대하여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시대는 변천하고 시속은 변하여도 국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을 이룩한 김일성주석님의 고귀한 우애심은 래일에도 변함없이 천하를 밝힐것이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으며 나는 진정과 진실만을 담아 이 글을 달린다.

송화강의 흐름도 친지에 시원을 두었다

나는 김일성주석님이 그리워질 때면 무송현성의 밤거리들을 거닐곤 한다.

현세기에 무송도 몰라보게 변하였다.

그러나 현대적인 면모속에서 력사는 의연히 숨쉬고 있다.

중국에는 『동을 거울로 삼으면 웃차림을 바로 잡을수 있고 력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는 격언이 있다.

력사라는 거울은 지난날을 통하여 오늘과 래일을 비쳐주는 법이다.

백두산기슭에 위치한 무송현에는 가는 곳마다에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 김형권동지, 김철주동지의 체취가 슴배여있고 김일성주석님의 유년시절과 항일혁명시기의 뜻깊은 사적이 있다.

주석님께서는 무송을 고향이나 다름없이 여기시였다. 하기에 현성의 소남문안에 있던 옛집과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우신 백산학교, 장율화렬사와

한책상에 앉아 2년간 공부한 무송제1우급소학교, 신비로운 선인동의 동굴, 대영온천과 마안산밀영 등을 감회깊게 추억하시던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현성의 서쪽으로는 송화강이 굽이치고 있다. 주석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장율화와 함께 자주 이 강에서 헤엄을 치시였다. 그이께서 길립육문 중학교로 공부하려 떠나실 때 아버지가 이 강변에서 눈물로 바래워드렸다.

오늘은 물결우에 대교가 건듯 걸렸지만 지금도 송화강은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너시던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정히 비껴담고있는듯싶다.

백두산천지는 력사의 세 장강을 뽑아내는 발원지이다. 압록강, 두만강과 함께 송화강의 용용한 흐름도 백두산천지에 그 시원을 두었다.

오늘도 광활한 대지를 적셔주며 사품쳐흐르는 송화강의 물갈기마다에는 백두팡야를 주름잡아 남전북정하시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의 자욱자욱이 비껴있다.

내가 왜 송화강의 흐름을 보며 그 시원을 생각하게 되는것인가.

만경대일가분들과 우리 장씨가문사이의 우정은 나의 할아버지인 장만정으로부터 보면 6대에 걸쳐 송화강의 흐름처럼 출기차게 이어져 오늘은 조선과 중국인민들은 물론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하고 있다.

우정이 우정을 넣고 그 우정이 다시 더 큰 우정으로 끝없이 승화되는 과정에 세상에 류례없는 감동적인 인간관계의 력사, 참다운 동지애의 력사가 창조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 사랑, 혁명적의리에 기인된다.

나는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공산당원으로서 장율화렬사를 존경한다.

대부호의 아들이지만 불우한 망국소년과 죽마고우가 되여 친형제의 우정을 나누고 주석님께서 항일전장에 나서시였을 때는 재력과 심력을 다하여 수십 자루의 무기와 막대한 물자, 자금으로 김장군부대를 후원한것은 쉽지 않은 일이였다. 더우기 김일성주석님의 직접적인 영향과 보증속에 혁명조직성원으로 성장하여 혁명활동을 벌리고 조

선혁명의 심장인 김일성장군의 안녕을 위해 25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자결함으로써 순결한 우정을 지키고 혁명적의리를 꽂피웠다.

아버지는 희미해지는 의식을 모아 성주, 나의 친근한 전우여, 나는 동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소, 잘 있소라는 마지막말을 남겼다고 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국에서 사귄 한 벗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혁명전우가 희생된후에도 잊지 못하시여 풍찬로속의 꿈속에서 자주 만나시였을뿐아니라 온갖 세파속에서도 그를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국제주의전사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아버지가 장렬하게 희생되였을 때 나는 4살, 아버지의 모습을 단편적인 표상으로밖에 새기지 못하는 나이였다. 그때까지 바깥출입을 모르고 살아온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림종시에 남긴 유언을 듣고서야 남편이 김일성장군과 함께 혁명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순박한 네이인였다.

하여 나는 아버지와 김일성주석님사이에 친분관계가 깊었다는것만을 알고있었을뿐 그 관계가 친우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고 국경과 민족도 초월하는 그러한 혁명전우의 관계, 동지의 관계임을 이해할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27살이 되였을 때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후부터 출곧 우리 일가를 찾고계시던 주석님의 연줄이 마침내 닿아 우리집에 찾아온 한 항일혁명투사에게 나의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에 생생하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하는데 김일성장군님의 우정은 어찌면 그렇게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저의 남편을 잊지 않고계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사리에 맞는 말을 하였다고 여겼으나 지금 보면 그 인사말에 무엇인가를 보충하고싶은 생각이 들군 하는것을 어쩔수 없다.

김일성주석님의 우정의 세계를 어찌 단순한 친우관념에 머무르며 하늘이나 인간일반의 변함에 비길수 있겠는가.

인류공동의 재보일뿐아니라 우리 가문의 가보로 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주석님의 심중에 출렁이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읽을수 있었다.

주석님께서는 회고록의 여러 대목에서 아버지를 회고하시였으며 4권에서는 독립적인 두개 절로 갈라서 구체적으로 쓰시였다. 다음의 대목이 더욱 눈물을 쏟게 하였다.

『나와 장율화의 우정은 장율화가 서거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장율화는 세상을 하직하였지만 나는 한시도 그를 잊은적이 없었다. 장율화가 남기고 간 그 인간적향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의 폐부에 더 깊숙이 젖어들었다. 항일전쟁이 조중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의 추억속에 제일 선참으로 떠오른 수많은 중국의 동지들과 은인들가운데서도 장율화는 단연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나는 회고록을 통하여 주석님께서 지니신 우정에 대한 비범한 견해와 지향을 알수 있었다.

사람의 생존에는 명이라는것이 있어도 장율화에 대한 나의 우정에는 명이란 없다. 진실한 우정은 생명보다 길다. 우정의 나이는 인생의 수명과 동갑이거나 세월의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단명이여서는 안되어 영원한것이여야 한다. …

인류는 인간생명의 유한성을 인식한 그만큼 영생을 얻고자 장구한 세월 모지름을 써왔다. 하지만 혁명적우정의 무한함을 주장하여 심각한 사색과정과 내적체험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마침내 그 영원을 이루하신 분은 세상에 오직 한분 김일성주석님이시다.

아버지에 대한 주석님의 영원한 우정은 후대들인 장씨가문의 우리 3대, 4대, 5대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계속되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중국의 령도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조선방문이 실현되도록 하여주셨다.

만화방창한 봄날 나와 너동생 장금록, 만아들 장기는 꿈결에도 그리던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왔다. 흰오리가 섞인 머리칼을 봄바람에 날리시며 기다리시던 주석님께서는 환생한 아버지를 보시는 것인지 말없이 우리들을 주시하시더니 와락 한아름에 그리안으시였다. 주석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였다. 나도 동생도 눈물을 흘리였다.

아, 우리 큰아버지! 샘솟는 눈물은 주석님과 우리들사이의 관계가 친혈육의 그것임을 말하여주고있었다.

주석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화제의 대부분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석님의 이야기는 중복되지 않았다. 능란한 잡수부가 깊은 대양에서 진주보석을 골라내듯 하여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우리들에게 피와 살을 가진 아버지의 생동한 모습을 주셨고 아버지의 유지가 무엇이었던가를 리해시켜주시였다.

장금친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율화의 아들임.)  
(다음호에 계속)



## 비 땅은 어린이식료품을

얼마전 우리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았다.

우리가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회색, 연회색 타일들을 조화롭게 붙여 외부를 장식한 여러동의 생산건물이 틀지게 들어앉아있었다. 그리고 시내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찾아 달려갈 콩우유 차들도 줄지어 서있었다.

우리가 발걸음을 먼저 옮긴 곳은 콩우유직장이였다.

직장문을 열고 들어서니 혁신자들의 성과를 소개하는 커다란 속보판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리고 넓은 현장에 들어앉은 현대적인 설비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고있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국의 사랑을 전해간다는 보람을 안고 제품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이곳의 한 로동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에 들어와 직장이 이루한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직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파

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나라의 관심속에 모든 생산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진데 맞게 중산의 열쇠를 기술혁신에서 찾았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누구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제품의 질과 실수률을 보다 높일수 있기때문이였다.

그 실현을 위해 온 직장이 부글부글 끓었다. 작업반별, 종업원별로 기술혁신경쟁이 벌어졌다. 비록 종업원들의 대부분이 가정을 이룬 여성들이지만 그들은 자기 일터,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누구라없이 책을 읽고 토론도 하며 창의고안을 위한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일단 현장에서 창안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크든 작든 소홀히 대함이 없이 직장적인 협의를 하고 공장에서 집체적토의를 진행하여 하나하나 실천에 구현해나갔다. 매월 생산실적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성과는 비단 콩우유직장에서만이 아니였다. 분쇄, 당화, 력파, 진공농축, 건조, 제품선별 등을 맡아하는 설비들이 하나의 흐름식 생산공정을 이루고 쉼없이 가동하는 얘기였다. 농축물의 분실방지 및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공무직장을 비롯한 현판단위들에서는 생산현장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을 내놓고 생산에 도입하여 커다란 은을 냈다.

누구나 생산의 자각적인 열성자가 되고 중산의 주동적인 발기자가 되여 보람찬로동을 해가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퇴근후이면 공장의 과학기술지식보급실건설장에 달려나가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이 무척 돋보였다.

우리는 이들의 뜨거운 마음이 합쳐져 더 끔찍, 더 활짝 꽂펴날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공장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제품생산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간다.



# 기적창조의 근본열쇠

기적은 결코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간, 인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활동과 잇닿아있다. 세상에 인민대중을 떠난 창조와 혁신,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이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며 모든것의 선생이고 모든것의 창조자라고,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고 하시였다.

그렇다면 무슨 힘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신력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사상의 힘, 정신력에 의하여 추동된다. 정신력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인민대중의 투철한 자주정신, 신념과 의지의 힘이다.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이 발양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되게 된다.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역사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천리마대 고조시기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t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고 김철의 로동계급은 19만t 능력의 제철

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생산하는 혁신을 이루하였다.

만수대예술극장과 락원거리의 건설로 시작된 평양번영기는 불과 15년동안에 창광거리, 광복거리 등 여러개의 현대적인 거리들과 인민대학습당, 만경대유희장,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낳았다.

생존자체가 기적이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가 강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을수 있은것은 끝까지 혁명을 하겠다는 정신력이 강했기때문이다.

지난해 조국땅우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도 천만군민의 강의한 정신력,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창조의 불길높이 천만군민은 고결한 충정파 애국의 열정으로 건설장들마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 수많은 대상들이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특히 10년은 걸려야 한다던 마식령스키장건설을 1년남짓한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였다.

사실상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

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온 조국의 력사는 어떻게 조선이 세계적인 정치적동란과 제국주의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강경보루로 솟아올랐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국에서 올해의 거창하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올해를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여나가는데서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바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이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부문에서 혁신의 봉화가 타오르자고 해도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야 하고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자고 해도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러일으켜야 하며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자고 해도 과학자, 기술자들의 재능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하기에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있는것이다.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억세게 다져진 무비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올해의 종진군을 거창한 창조와 혁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비약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윤홍기



## 끌맺지 못한 최재



윤창혁

찾았을 때였다.

『조국의 우주개발사업은 청춘기에 들어섰습니다.

기자동무도 보다싶이 20, 30대의 쟁쟁한 우주정복자들이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의 중진을 이루고있습니다.』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며 국가우주개발국 위성판제종합지휘소 부소장인 박사 부교수 윤창혁이 하는 말이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연구사들은 모두 쟁쟁한 청년과학자들이였다. 우리는 정열에 넘쳐 바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연구사업을 방해하고싶지 않았다. 우주개발분야에서부터 시간을 다투며 새로운 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해 분초를 아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짊음으로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게 된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윤창혁은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에 새로 입사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손을 잡아끄는것이였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집에 가보면 우리 우주과학자들



이 어떤 사랑속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것입니다.》

호기심으로 하여 우리는 그를 따라 차에 올랐다.

얼마후 우리는 아담하고 화려한 은하과학자거리에 있는 그의 집앞에 이르렀다.

《윤창혁》이라고 쓴 문패가 달린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의 안해 리선화녀성과 두 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먼저 그들 부부의 안내를 받으며 집부터 돌아보았다.

부부방, 서재, 공동살림방과 부엌 등이 훌륭하게 꾸려진 다섯칸짜리 살림집은 그야말로 모든것이 생활에 편리하고 아늑하였으며 살림살이도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사랑이 그대로 안겨왔다.

살림집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리선화녀성이 웃음을 머금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원래 살고있던 집도 좋았는데 지난해 이렇게 더 좋은 집을 받고보니 우주정복을 위해 과학연구사업에 몰두하는 남편을 더 잘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한답니다.》

안해의 말에 윤창혁이 뒤를 이었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고 믿음에는 충정이 따르는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저뿐이 아닌 우리의 모든 과학자들이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속에서 우주정복을 위한 사업에서부터 조선속도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높은 수준의 실용위성들과 운반수단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올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결정이 채택되고 우주개발법이 발포된 때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로부터 한해가 지났습니다. 공화국의 우주개발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국가 우주개발국이 나옴으로써 우주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히 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윤창혁의 눈가에는 추연한 빛이 어리였다.

그는 일찌기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빛나는 선견지명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는 오늘의 우주정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남들 같으면 열백번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의 우주공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은 것은 주체공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다져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안아온 결파이라고 가슴뜨겁게 말하였다.

《푸른색원형으로 된 지구와 하늘배경의 북두칠성, 〈DPRK〉와 〈NADA〉라는 영문자략어로 형상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의 마크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제정된것입니다.》

불현듯 우리의 눈앞에는 2년전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창공을 훠지르며 9분 27초만에 자기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한 그날이 안겨왔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호기의 실패로 고충을 겪고있는 우리에게 주눅이 들지 말라고, 사람은 밥을 먹고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한겨울의 혹한과 강설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도록 지혜와 담력을 주신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말하며 그가 들려준 위성과 운반로케트의 설계와 제작, 조립, 발사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국산화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나날과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후에는 모든 성과를 우주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다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것이였다.

이때 집안을 울린 전화종소리가 우리의 결정을 깨뜨렸다.

전화를 받는 윤창혁의 긴장해졌던 눈빛이 대번에 밝아지면서 빛났다.

《… 알았소. 곧 나가겠소.》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고심하던 연구파제가 완전히 성공하였는데 자리를 뜨게 되여 미안하다고 하였다.

취재는 더이상 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헤여지면서 《이제 더 훌륭한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 때 다시 만나 더 깊이있게 이야기해봅시다.》라고 하는것이였다.

더 훌륭한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 때…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영일

# 백호네 세형제



이제 한달만  
있으면 백호네 세  
쌍둥이는 모두 4살이  
된다.

그들의 이름은 방백호, 방두호, 방산호이다.  
평양시 락랑구역 충성3동에서 살고 있는 세쌍둥  
이의 아버지 방성진은 평범한 로동자이고 어머니  
최정순은 부양이다.

나라에서는 백호네 세형제를 평양시육아원에서  
전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철따라 새옷을 입혀주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보내주는 나라의 품속에서  
백호네는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

태어났을 때에는 몸무게가 1.5kg도 되나마나  
하던 그들이 이제는 15kg이나 되었다. 키도 거의  
100cm가 된다.

하지만 그들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백호네 부  
모는 셋이나 되는 아들들에게 품 한자루 들인적  
이 없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새옷 한벌 사주어보  
지 못하였고 덮어진 옷을 빨아입혀본 적은 더욱더  
없다.

백호네 세형제는 언제나 자기들의 눈에 익고 마  
음속에 정든 육아원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보육원들을 『우리 엄마』라고 찾고 있다.

요즘 그들은 이제 오는 생일날에 자기들의 재간  
무대를 펼쳐놓기 위해 셈세기공부와 춤, 노래연습

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열까지 셈세기를 하  
고 많은 노래들의 발음

을 꼭꼭 씹고 있으며 춤률동도 더 고와졌다.

『엄마』들에게 들려달라고 조르던 옛이야기들  
을 이제는 반대로 『엄마』들과 동무들에게까지  
생동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들이다.

지난 2월 백호네 세쌍둥이는 평양시육아원을 찾  
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모두  
안기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호네 세쌍둥이  
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총각애들이 멋있다고, 눈  
매가 꽃 같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백호에게 동  
무들과 잘 지내라고 친아버지의 목소리로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삼태자가 많은  
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늘 말씀하시였다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육아원을 지어  
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

백호네 세형제는 그이의 말씀대로 동무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세상에 부럽없이 무럭무럭 자라  
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해

#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과 그 주인공들

올해 4월 1일부터 조국의 모든 학교들에서는 전  
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우리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첫 주인공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고 있는 중구역 창전소학교를 찾았다.

아담하게 꾸려진 학교에는 현실발전과 새로운  
교육시책의 요구에 맞게 모든 교실들과 실습실,  
시청각실들이 손색없이 그(nn)하게 꾸려져 있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들린 곳은 1학년 1반이였다.

교실에서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지식과 초  
보적인 언어실천능력을 키워주는 국어수업이 진  
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각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국어교과서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인가를 대답하고 앞으로 자기들의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과학자, 인민군대, 비행사, 배우 등의 여러 그  
림을 보고 또랑또랑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틀리게 대답하였다가 옆동무의 도움  
으로 다시 대답하고는 멋직어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들의 희망을 말하는데서는 누구나  
주저함이 없는 그들이였다.

『저는 앞으로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라는  
전예림학생, 『저는 앞으로 커서 위성과학자가 되  
겠습니다.』라고 하는 한지남학생, 『전 훌륭한  
성악배우가 되겠습니다.』라고 또랑또랑 대답하  
는 백예진학생, 『나는 온 세상에 공화국기발을  
날리는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말하는 리원웅학생, 그뒤를 이어 기관사, 비행사  
가 되겠다고 저저마다 자기들의 희망을 이야기하  
는 학생들이였다.

서로의 희망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선생님의 물음에 학생들 모두의  
대답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하나의  
대답이였다.

그리고는 이 수업시간에 벌써 그 소원이 다 이



우리 말 공부시간

루어지기나 한것처럼 으쓱하여 서로 웃는 학생들이였다.

다른 학급의 수업시간을 통해서도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아래 자기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자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앞에 나와 제법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하는 1학년 2반 학생들의 도화공작시간이며 학교가까이에 있는 모란봉에서 수업시간에 익힌 여러가지 꽃과 나무들에 대하여 실지 보면서 자연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익혀가는 1학년 3반 학생들의 자연관



콩우유시간



자연관찰

동식물실에서 배운 지식  
을 다져간다.



찰시간…

그 어느 과목의 수업시간에서나 학생들은 머루 알같은 눈동자들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설명과 물음에 집중하여 배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익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장난기가 심한 나이라 휴식시간이 되면 복도의 키를 재는 장소에서 서로 누가 더 커는가를 재느라고 싱쟁이질을 하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못한 말을 하느라 떠들썩거리기도 하였다.

이들의 일파에는 결코 수업시간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시간도 있고 학생들이 매일 즐겨맞는 콩우유먹는 시간도 있다.

하루수업을 끝낸 학생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는 우리에게는 1학년 1반 담임교원 남영심이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체육시간



누가 더 클가.

희망찬 미래를 안고 더 활짝, 더 밝게 웃으며 자라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주인공들의 래일의 모습이.

글 본사기자 강 국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식경제시대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 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취해진 우리 조국의 또 하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조치입니다.

그 사랑의 첫 주인공들이 이들이야말로 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꽂피워 갈 열의안고 노래소리, 웃음소리 높이 울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는 우리의 가슴속에 더 옥더 깊이 안겨왔다.



검진하는 날

# 금릉운동관에 와 만난 사람들

얼마전 우리는 금릉운동관을 찾았다.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운동관에서는 랑만과 희열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있었다.

사격장과 종합기재운동실, 룰동실과 물놀이장, 암마실 등을 가지고있는 운동관은 들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사격장이였다. 넓은 사격장은 정면으로는 푸른 배경판이 펼쳐져 있고 바닥에는 인공잔디가 깔려있어 실내에서 사격하는감을 전혀 주지 않았다. 사격탁우에는 여러 자루의 권총과 보총이 주렁이 놓여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나이는 각이하였다.

한번 총을 쏘고는 자

동적으로 목표판을 끌어당겨 자기가 쏜 총의 명중률을 확인하고 또 한번 쏘고는 다시 확인하는 그들에게서 웃음과 탄성, 아쉬움이 끊길줄 몰랐다.

그속에서 안해에게 사격묘리를 가르쳐주는 남편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서홍동 4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어느 한 가정이였다.

『휴식일이여서 우리 가정은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격도 하고 스쿼시라는것도 해보며 하루를 즐기자고 합니다. 아이

며 힘키우기운동을 하고있었다.

보다 유쾌한것은 스쿼시였다. 체육장기로 불리우는 스쿼시는 젊은이들은 물론 중년기와 노년기사람들도 즐기는 체육운동이다.

재치있게 스쿼시운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띠였다. 한 청년이 말하였다.

『얼핏 배우자면 불과 몇분밖에 안걸리지만 완전히 파악하자면 한생이 걸린다는 스쿼시운동입니다. 이렇게 스쿼시운동을 해보고나니 아주 재미가 들고말았습니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며 운동관의 일군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금릉운동관에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이깃들어있습니다.

어느해인가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장군님께서는 메

아리사격관을 돌아보시고 수도의 중심부에 사격장을 갖춘 운동관을 하나 더 세워 인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할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관의 형성안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완성시켜주시여 오늘은 여기 대동강기슭에 금릉운동관이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는 말이였다.

오늘은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편리성을 선차로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봉사시설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고계신다. 앞으로 이 땅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인민사랑의 기적이 창조되겠는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운동관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종합기재운동실



스쿼시운동



룰동실

들은 또 아이들대로 물놀이장에 가자고 하는데 …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들의 즐거운 시간을 빼앗고싶지 않아 운동관의 2층으로 향하였다.

『돌파하라 최첨단을』의 경쾌한 선율이 울리는 룰동실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룰동운동을 하고있었으며 옆방에서는 청년들이 구간, 아령 등의 기재를 다루



사격장에서

# 날로 발전하는 민족료리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이루어 진 조선민족료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뿐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인민은 일찌기 꾸준한 탐구와 근면한 노력, 깨끗하고 깐진 살림살이 기풍을 발휘하며 생활해오는 과정에 평양냉면이나 김치와 같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료리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명의 언덕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

료리사들의 기술경연



게 하기 위하여 조국에서는 음식 문화발전에 적지 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료리는 인민적인 것으로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풍부화되고 있으며 료리의 과학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하게 세워진 금양봉사단위들에서는 민족음식의 향취가 언제나 풍겨 나오고 있다.

조국의 어느 지방에 가보아도

그곳 특산물로 만든 지방음식들을 맛볼수 있다. 중앙과 지방들에서 진행되는 료리축전과 료리경연, 신선로, 평양랭면, 강냉이 국수와 같은 음식들에 대한 품평회들을 통하여 료리의 수준을 부단히 높여가고 있는 조국인민들이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조국에서는 태양절료리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해가 흐를수록 축전에 참가하는 단체와 인원, 료리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모든 료리들이 맛에 있어서

는 빵들을 전시하였으며 도대항 경기와 우수한 료리사기술경연, 접대기술경연, 료리사, 접대원들의 기교시범출연 등을 진행하였다.

조선료리협회의 한 일군은 축전에 참가한 그 어느 단체에서나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특성을 살려 완성한 명료리들과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새롭게 창안완성한 료리들을 내놓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대중음식들을 위주로 전시한것으로 하여 이번 축전이 사

료리과학기술성과자료 전시



도 민족적 향취가 풍겨나고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특성이 살아나고 있다.

지난 4월 평양면옥에서 진행된 제19차 태양절료리축전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축전에는 각지에서 선발된 50여개 단위의 1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축전 참가자들은 민족음식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련마하여온 료리기술과 접대방법을 잘 보여주었다.

축전에서는 명절료리, 지정료리,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

람들의 일상생활에 가깝게 접근한 현실적인 의의가 큰 료리축전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축전에서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이목을 특별히 끈것은 료리과학기술성과자료전시회였다.

전시회에는 해당 단위들에서

도대항경기, 돼지고기 또는 통정어를 가지고 기술 기교를 보여 주는 경연 등도 날로 발전하는 우



감자로 쌈 룽정어구이

새롭게 창안완성하여 봉사에 밭 아들인 료리 및 식료가공품, 료리가공설비와 조리도구들 그리고 료리기술보급에 리용하고 있는 료리기술도서와 참고서, 록화편집물 등의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이밖에 명절료리, 지정료리전시회와 삼계탕, 추어탕, 콩음식

출연도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업적인 방법으로 빵을 생산하는 단위들에서 전시한 빵제품들도 보기 좋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조국에서 벌어지는 료리축전과 료리경연, 품평회들



파일자즈랭채

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게 하고 일반가정음식, 지방별 특성을 살린 대중음식을 비롯한 민족전통료리들의 가공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지방별 특산음식과 대중음식들을 더 많이 찾아내려는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민족료리는 날을 따라 더욱 발전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연구에 열중하는 조수경 (딸)



새 품종의 버섯을 관찰하는 한경화 (어머니)

## 모녀버섯박사

자기 직업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가족성원들에 대하여 가리키는 부름말이 있다.

박사부부, 음악가가정, 열네명의 교육자가정… 그들 가운데는 모녀버섯박사도 있다.

그들은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박사 한경화와 같은 연구소 육종연구실 실장으로 사업하는 그의 딸 박사 조수경이다.

한경화가 버섯과 인연을 맺고 연구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5년전이다.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기름작물연구를 시작했던 그는 어느 날 버섯재배를 많이 할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받아안게 되었다. 스스로 버섯연구에 달라붙은 그는 첫 연구성과인 벼짚버섯을 내놓게 되었으며 김일성대원수님께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의 연구사업은 더욱 힘있게 진행되었다. 그는 다른 여러 버섯품종을 연구하여 전국에 도입하고 집약화재배를 실현시켰으며 버섯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그는 조국의 여러 곳을 다니며 계절별, 도시와 농촌의 차이 그리고 기질의 원료원천, 각 이한 시설물의 특성 등의 요구에 맞게 버섯품종들을 육성하였으며 재배방법을 확립하였다. 특히 기질생산에서 대량으로 요구되는 날알부산물대신에 집집승배설물을 리용하여 기질발효의 공업화기술을 확립하고 표준화하였는데 그것은 학술적으로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가치가 큰것이였다.

주체102(2013)년 10월 이곳 연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경화의 미생물발효기술에 따라 제작되고 설치한 멀균기와 기질발효기를 보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설치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날 한경화는 격정속에 흘러간 한생을 돌이켜 보았다고 한다.

『사실 평시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릴적 올망졸망한 우리들을 아버지에게 말기고 1년치고 거의나 전국의 버섯재배장에 나

가있으면서도 또 아버지를 잃었을 때조차도 어머니는 강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숭고한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자책으로 눈굽을 적시였습니다.』

이것은 한경화의 딸 조수경의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어릴적에도 또 대학을 졸업할 때에도 어머니의 그 속마음을 미처 몰랐다고 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어찌다 어머니를 찾아 농촌에 가보면 어머니의 모습은 연구사라기보다 농장원이였고 공장에 가보면 버섯관리공으로 안겨오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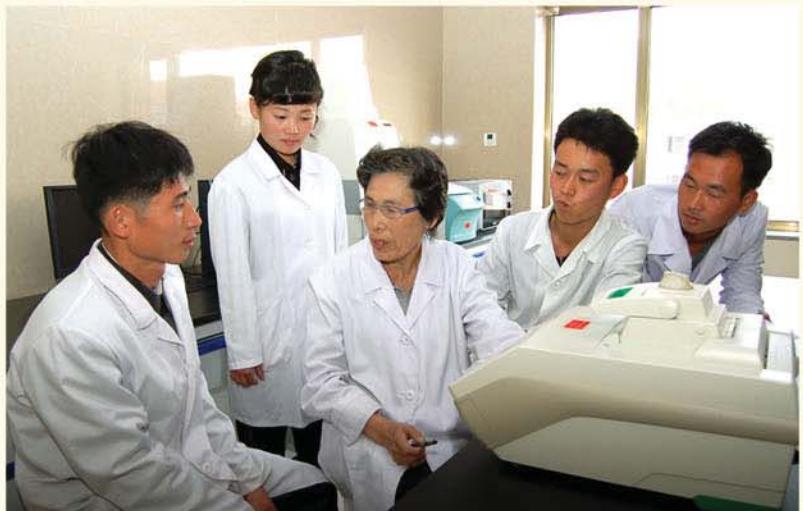
그러나 어머니는 『너도 알겠지만 어머니의 가슴속엔 버섯이 꽉 차있다. 난 너도 그렇게 되길 바랄뿐이다.』라는 당부를 하였다. 그의 당부는 수경의 마음을 버섯연구에로 이끌었다.

수경은 마음먹고 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어머니가 연구한 벼짚버섯과 느타리버섯 유전자원의 분류와 우량계통선발에 대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연구사업을 심화시킬수록 수경에게는 조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으면서도 우량품종의 버섯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어머니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그런 마음은 연구를 심화시킬수록 더욱 그리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감정과 함께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선배로, 스승으로 모시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달아오르게 하였다.

딸과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로 불타올랐다. 그것은 그대로 연구성과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딸보다 더 기뻐한것은 어머니였다.

수경은 『버섯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담겨진 결정체라는것을 가슴에 품고 연구사업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그들 모녀는 공동연구로 성과를 확대하여 두건의 가치있는 연구에서 성공하였다. 첫 연구에서 어머니는 기질을, 딸은 종균을,



새 세대 연구사들과 함께

두번째 연구에서는 원료탐색과 기질준비는 딸이, 종균과 육종은 어머니가 맡아 수행하였다.

그 나날에 수경은 한생을 바쳐 버섯연구사업을 하여온 어머니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고 어머니의 당부에 담겨진 참뜻을 깨닫게 되였으며 박사학위도 수여받게 되였다.

오늘도 그들 모녀는 마음속에 버섯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루빨리 조국을 버섯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박수원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고



# 어디서나 일고 있는 수영바람

얼마전 우리가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찾았을 때였다. 하루 강의가 끝난듯 수영관은 많은 사람들로 흥성하고 있었다. 세련된 솜씨로 물결을 쭉쭉 헤가르며 해염치는 대학교원들, 남녀대학생들…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의 마음도 흠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에서

빼 젖어들었다.

우리와 만난 수영관의 림은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곳에서 수영을 보급하는데 수영에 대한 교직원,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더우기 7, 8월이 해양체육월간이여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영관을 찾아와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경기도 합니다.』

그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수영이 대중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수영교육을 받고 있다. …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최근년간 취재길에서 보았던 여러 모습이 떠올랐다.

새로 홀륭히 건설된 평양의 름라물놀이장과

문수물놀이장, 평성물놀이장과 사리원시 길성포야외물놀이장 그리고 각급 학교들마다 꾸려진 수영장 등에서 수영을 배우느라 웃고 떠들던 청소년학생들의 모습, 해마다 여름철이면 학교별, 학급별로 집단의 단결력과 수영능력을 과시하며 대동강도하경기를 진행하곤 하는 나어린 학생들의 모습, 무성한 솔숲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송도원해수욕장이며 마전해수욕장을 비롯한 바다가 해수욕장들에서 저마다 수영솜씨를 보이던 각계층 근로자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창광원수영관에서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계기로 진행되곤 하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에 참가하여 활기를 띠던 일군들의 모습…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의 이모저모를 다시금 둘러보았다. 그를 통해 우리는 어디서나 일고있는 수영바람, 나날이 더욱 고조되는 나라의 체육열기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해마다 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청소년학생들의 대동강도하경기가 진행된다.



## 상식

## 조선기와

조선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와를 생산하였다.

조선기와는 고조선때부터 많이 만들어졌는데 삼국시기에는 기와생산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들까지 있었다. 특히 삼국시기 기와생산이 발전하면서 조선의 기술자들이 일본에 초빙되어가 기와생산기술을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조선기와는 수기와와 암기와로 되어있다.

암기와는 완만한 곡면으로 되었다. 이것은 지붕면 우에 아래로부터 줄지어 올라가면서 겹쳐 있는데 아래우가 겹치는 길이는 기와길이의 1/3 이상 되게 한다.

수기와는 직경 15~20cm정도의 원통 또는 원추대를 절반 쪼갠것과 같은 모양을 가진다. 이것을 암기와와 암기와사이에 줄지어 엎어놓는다. 수기와의 한쪽끝에는 좁힌 턱, 다른쪽끝에는 넓힌 턱이 있어 아래우의 수기와가 서로 맞물리게(턱으로 겹치게) 되어있다.

암기와는 지붕면의 풀(고랑)이 되고 수기와는 마루(이랑)가 되어 비물파 눈녹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한다.

조선기와에는 기본기와인 수기와와 암기와 이외에 마루새기와, 풀막이기와, 막새기와, 초장기와, 장식기와 등이 있다.

조선기와는 색깔도 여러가지이다.

기와는 흔히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굽는 온도와 원료의 종류에 따라 기와의 색깔이 붉은색 또는 검은색을 띠었다. 그후 기와겉면에 칠물을 바르게 되면서 푸른색, 풀색, 누런색 등의 색기와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이름있는것의 하나가 청기와이다.

칠물기와는 색갈에 의한 장식효과뿐아니라 방수기능이 매우 높다.

옛날 조선기와의 우수한 점들을 살려 현재도 조선기와를 생산하여 조선지붕형식을 가진 건축물들에 적절히 리용되고 있다.

\* \* \*

# 동포들의 지성이 깃든 연구소



재일조선상공인들이 박진구부부와 박상구부부의 애국심을 전하기 위해 세운 충성비

동포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조국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나서자란 땅, 선조의 무덤이 있는 곳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니라 조국에 한 가지 보람이라도 더해주고 싶은 열망이 간직되어있기 때문이다.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고려의학과학원 침구연구소에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재일조선상공인들이 박진구부부와 박상구부부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다.

연구소는 동포들의 애국의 그 냉을 빛내이며 고려의학발전과 환자치료에서 자랑스러운 혁신을 아로새기였다.

연구소에는 품치료, 회복치료, 뇌졸증연구실, 경락연구실 등 8개의 치료 및 연구실이 있다.

연구소에서는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침구학의 기초리론인 고전경락리론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고 침, 뜸, 부항, 수법을 비롯한 비약물성 치료수단으로 경추증, 류마チ스판절염,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가지 난치성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힘상실천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미 컴퓨터에 의한 침혈진단기인 다용도침혈전도계를 개발한 침혈진단연구실의 연구사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속 개신해 나가고 있다.

그들이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는 뇌혈관계통질병의 예측과 예후평가뿐아니라 내장질병, 혈당, 위산도검사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정확한 확률이 75% 이상이라는 기록을

는 기구들과 치료방법들을 탐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구사들의 사색과 탐구에 의해 착상된 적외선집초뜸치료기와 먼적외선뜸돌뜸치료법 등 여러 치료기구와 방법은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인민의사, 교수 박사 장도선을 비롯한 수법치료연구실의 연구사들은 정확한 진단과 정성으로 영예군인들과 로인성질환으로 걷지 못하던 환자들을 치료하여 다시 대지를 활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난치나이연구실에서는 지난 시기 많은 경우 신의학적치료에 의존하여오던 추간판탈출증과 경추증, 관절염 등 척추사지판절기능장애치료를 침혈이나 압통점에 난치나이주사를 놓고 부항을 불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한 진단



여러가지 고려치료방법들을 적용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는 치료방법을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경락리론을

현대의학의 조절계통으로 해석하고 침구학의 과학리론적기초를 계속 밝히기 위한 연구를 목표로 내

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

연구소소장 최혁은 《앞으로 여러 계통의 난치성질병들에게 대한 침구치료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꼭넓게 진행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



고 말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은 조국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내가 침구치료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그곳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 상식

### 소금, 사탕, 알콜의 해를 줄이는 방법

3대성인병식료품이라고 알려진 소금, 사탕, 알콜의 해로운 작용을 막아야 한다.

1. 소금의 해를 줄이려면 감자, 사파, 콩을 비롯한 과일과 남새 등을 많이 먹어야 한다.

칼시움이 많이 들어있는 남새인

감자, 도마도와 사파, 수박 등 과일을 먹게 되면 나트리움과 염소를 몸밖으로 제때에 내보낸다.

2. 사탕의 해를 줄이려면 과, 양배추, 흥당무우의 단맛을 이용해야 한다.

3. 알콜의 해를 줄이려면 두부를

먹고 빠다를 먹지 않는것이 좋다.

간에 필요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짐승 및 물고기의 간제, 미꾸라지, 뱀장어 등이 좋다.

고단백식사와 비타민B<sub>2</sub> 등을 많이 섭취하면 알콜의 해를 막을 수 있다.

# 애국과 청춘

##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부위원장 업광철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이다.

조국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건설장들 그 어디서나 자기들의 지혜와 용맹을 다 바쳐가고 있다.

부위원장: 지난 시기에도 그 래했지만 오늘도 조국의 방방곡곡 새로운 창조물들이 일떠서는 곳에는 청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는 위훈으로 빛나는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그 어디서나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드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 조국은 날에 날마다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새기고 있다.

기자: 시대를 변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벅찬 투쟁에서 수도의 청년들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부위원장: 그렇다. 평양시안

의 많은 청년들이 고마운 내 조국을 더욱더 빛내이는 길이 진정한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그 길에 청춘의 보람찬 삶이 있다는 자각을 안고 정다운 고향집, 사랑하는 수도를 떠나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원진출하여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그들만이 아니다.

창전거리,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등 최근년간에 하루 하루 몰라보게 변모되고 있는 평

양의 모습에도 수도청년들의 남 모르는 수고가 깃들어 있다.

수도의 많은 청년들이 하루일과가 끝나면 매일과 같이 스스로 수도의 여러 건설장에 자원적으로 달려나와 지원로동으로 수도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는데 기여하고 있다.

오늘 수도 평양을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가기 위한 사업에서도 언제나 청년들이 앞장에 서고 있다.

지금 우리 평양시청년들이 말아 진행하고 있는 어느 한 대상공사가 있는데 이곳으로 달려온 청년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과 행복할 래일에 대한 락관으로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타개하며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가고 있다.

기자: 그 모든것은 일찌기 청년문제를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문제로 보시고 나라의 청년운동발전에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빛나는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며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청년들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부위원장: 옳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미래를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혁명의 전도이며 미래인 청년들을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운동중시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청년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청



년들을 혁명파 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주시고 그 길에서 청년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해주시였다.

청년영웅도로, 안변청년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등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이 어린 『청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청년종시사상을 그대로 이으신 분,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이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온 나라 청년들을 한품에 안아 창조와 위훈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가 있고 그이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단숨에 해제끼는 청년들이 있기에 조국의 운명과 미래는 락관적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천백배의 힘과 용맹을 안겨주는 원천으로 되고있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수도의 청년들만이 아닌 조선의 모든 청년들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참다운 애국자로 청춘을 빛내일 것이다.

\* \* \*



중국 길림성 돈화시 민주가 2호지2 전기록 앞

## 삼촌어머니에게

삼촌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평생 조국을 그리며 살아오신 삼촌어머니와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조국에 있는 이 조카는 『금수강산』 기자선생님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올해 설날을 맞으며 제가 보낸 설인사 겸 문안편지를 받아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촌어머니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은화언니와 송주오빠, 은숙이와 송웅동생 등 모두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도 건강하여 잘 있습니다.

수정이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사업으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칠주사범대학에 다니는 수정이는 이젠 졸업반이어서 교육실습이랑 하느라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이국땅에서 친척들도 없이 외롭게 한생을 살아온 삼촌어머니도 이제는 80고령이 되었고 언니와 오빠, 동생들도 중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아직까지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한해, 두해 세월만 흐르니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전번편지에도 썼지만 저는 지난해에 직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을 때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 이웃들과 직장사람들이 저마다 찾아와 돌봐주고 위로해주었지만 그속에서도 제일 그리운 것은 먼저 간 부모형제들의 사랑과 정 그리고 삼촌어머니와 사촌형제들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내 조국의 뜨거운 사랑



과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저는 지금 완쾌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사이 조국의 모습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아래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평양의 모습은 한해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만도 문수물놀이장이며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곳곳에 문화휴식장소들과 공원, 유원지들이 새롭게 꾸려져 겨울이고 여름이고 어디 가나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인답니다. 그뿐 아니라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문수기능회복원을 비롯한 치료봉사기지들과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답니다.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현실과 키가는 행복은 저희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일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삼촌어머니가 조국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으로 일떠섰는가를 직접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삼촌어머니, 건강이 허락되면 더 늙기 전에 조국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자식들과 함께 한번 와서 보십시오.

곳곳에 새롭게 훌륭히 꾸려진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우리가 삼촌어머니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웃고웃으며 기쁨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남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삼촌어머니와 형제들모두가 얼마나 조국이 그립겠는가고 하며 조국에 와서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여앉아 행복의 웃음소리를 터쳐보자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가 상봉할 기쁨의 날이 꼭 오리라고 믿고싶습니다.

삼촌어머니, 아무쪼록 건강에 류의 하여주십시오.

송주오빠를 비롯한 형제들과 조카들 모두에게 저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이만 편을 놓겠습니다.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24인민반  
현미숙조카로부터



최성천

## 그네식기중기의 창안제작자 최성천

전재분원 실장 최성천이다.

주체71(1982년) 조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계기로 건립되는 주체사상탑에 봉화를 조립하는 문제가 나섰다.

건설건축분야에 관록이 있는 많은 설계가들이 봉화조립안들을 제기하였으나 그 모든것은 현실성이 없었다. 탑우에 가설 건물을 짓고 봉화를 하나하나 조립하여 완성하는 방안대로 한다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질보장이 문제였다.

그때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는 이미 왕재산대 기념비의 봉화탑의 봉화를 끌어 올리는데서 그 가치가 뚜렷이 확증된 그네식기중기가 떠올랐다.

하여 주체사상탑의 봉화조립 파업이 그네식기중기를 발명한 최성천에게 맡겨졌다.

그는 그네식기중기의 구조력 학적계산을 면밀히 한데 기초하

여 도면을 완성하고 봉화를 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그네식기중기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건설자들은 이 기중기를 이용하여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어렵지 않게 들어올리여 공사를 제기일에 끝내였다.

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제작한 그네식기중기는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체육관건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창조물들의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체74(1985년) 벨가리아에서 있은 국제청년발명가들의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금메달을 수여받은 그를 나라에서는 열렬히 환영해주었고 연회도 차려주었으며 선물까지 안겨주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중국 동북지방에서 태여나 돈이 없어 희망하는 학교에도 못가고 부모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품팔이를 하던 자기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주는 조국을 위해 그는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어느 해인가 한창 건설중에 있던 국제친선전람관의 구조설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던 그는 도면에 눈길을 둔채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도면에 반영된 구조도식은 구조계산방법과 구조해결방법에서 일련의 부족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설계대로 공사를 내민다면 엄청난 국가재산을 잃게 되였다. 건설이 더 진척되기 전에 한시바삐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그는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사색을 거듭하던 그의 뇌리에는 초함

새 세대 건축공학연구사들을 키워간다.



수라는 착상이 떠올랐다.

건축공학을 전공하였지만 수학에도 전문가들 못지 않게 조예가 깊어 때때로 대학에도 나가 초함수에 대한 강의도 적지 않게 한 그였다.

그는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계산방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본래의 설계대로 한다면 많은 철근을 랑비하게 되여있었다. 기둥만 보더라도 철근이 2배이상이나 설치되게 되여있었다.

건설장에서는 그가 내놓은 계

산방법을 적용한 결과 수천t의 강재와 거액의 자금을 절약하게 되였다.

그와 오래동안 같이 일해오는 사람들은 말한다.

-원사선생이 가치있는 창안들을 해낼수 있은것은 그의 머리가 남달리 좋은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의 사색은 어떻게 하면 나라의 귀중한 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빠른 기간에 세계적수준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겠는가 하는데로만 출달음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탐구자세와 량심을 지닌 그였기에 일흔살의 나이에 《콤

퓨터지원에 의한 건물의 3차원 프로그램개발연구》를 스스로 말아나섰고 여든이 넘은 올해에도 기발한 착상으로 1t밖에 매달지 못한다던 평양체육관의 트라스에 근 6t이나 되는 전광득점판을 설치할수 있었다.

그가 양각도국제호텔건설의 나날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특성에 맞는 구조설계를 내놓아 자기 나라의 앞선 과학기술을 등대

하고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던 서방

의 어느 한 나라 기술자들의 코대를 꺾고 100만FF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이야기는 지금 건축공학부문의 과학자들과 학생들속에서 하나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수십년을 하루같이 과학탐구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한생을 바쳐온 그는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로 오늘도 시대를 빛내이는 창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휴식날에 자식들과 함께

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국가과학원 건축공학분원 부원장 조윤은 말하였다.

-주체사상탑과 조선혁명박물관, 국제친선전람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빙상관, 양각도국제호텔을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창광거리 등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창조물들은 건설과학탐구에 한생을 바쳐온 원사선생의 열정과 땀이깃 들어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 조선속담 (허황탕)

되지도 않을 허망한 일을 분별없이 바라는것을 비웃어이르는 말.

-바다에 떨어진 바늘을 찾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바늘을 찾으려고 하듯이 도저히 이를수 없는것을 이루어보려고 애씀을 비웃어이르는 말.

-닭알날가리를 옮겨가려 내려가려 한다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이런저런 공상을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도량 막고 고래 잡을가

-삶은 호박에 이 안들 소리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함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삶은 무우에 이 안들어갈 소리

-소집이 땀을 궂리하듯 하다  
혼자 속으로 꿍꿍거리면서 허황한 생각을 하는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지렁이도 릉되는 시늉한다  
지렁이가 릉이 되여보려고 꿈꾼다는데서 도저히 이를수 없는 허황한 망상을 하는것을 비웃어이르는 말.

\* \* \*

# 씨앗과 열매

규격화된 포전들과 살구나무, 추리나무를 비롯한 파일나무들 속에 묻힌 아담한 문화주택들, 시원스레 뻗어간 도로며 수종이 좋은 가로수들과 한데 어울려 한폭의 그림같이 안겨오는 농장마을.

여기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박홍수동포의 고향인 황해북도 은파군 강안리이다.

지난날 가물과 큰물 피해로 농민들의 눈물과 원한이 서린 태상벌, 지지리 못살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던 그 세월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오늘은 이곳에 자리잡은 강안마을이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천지개벽되었다.

이 전변의 씨앗이 어떻게 움트고 꽂펴난것인가.

농장일군인 최창선이 우리에게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은 서홍강이 농장원들에게 있어서 생명수이지만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재난과 화근을 가져오는 원한의 강이었다고 합니다.

긴긴세월 해마다 들이닥치는 물란리로 가꾼 날 알과 집마저 잃어버리고 가난에 시달리던 태상벌 농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깨끗이 못한 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했던 이 고장이 전변을 안아오기 시작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그날부터였습니다.》

주체43(1954)년 2월 수령님께서는 이름없는 이 강변마을을 찾으시여 물때문에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그들의 원한서린 백성보

강안리마을의 일부



에 만년대계의 언제를 쌓아 큰물의 피해로부터 사람들과 땅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주체47(1958)년 9월 또다시 강안리를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협동화의 길에 들어선 농장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을 통합할데 대해서와 농촌기술학교를 내울데 대한 문제,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사랑의 씨앗은 강안마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1958년에 비해 1959년에 알곡생산이 156%, 매호당 분배량은 155%로 장성...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이곳 농장을 수십차례나 찾아주시였으며 종합적기계화의 시범단위로 정해주시고 해마다 많은 농기계를 보내주시여 그전날 소달구지만 빼걱이던 태상벌에 기계농사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였다.

지난날 진펄과 갈대만 무성하던 강안리를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주시려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자 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노력적위훈을 멸치였다.

부침땅을 늘이었고 태상벌을 비롯한 이 고장에 논관개뿐 아니라 밭관개까지 실현하였다. 그리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을 빨리 높이였다. 집집마다

집집승마리수를 늘이였으며 매 세대마다 파일나무들과 줄당콩도 심어가꾸었다.

지금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두벌농사를 짓기 위해 보리, 올감자와 같은 앞그루작물을 대대적으로 심고있다.

오늘 농장에서는 논밭갈이는 물론 씨뿌리기와 모내기, 가을걷이 등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고 있다.

리에서는 올해에만도 40동(80세대)의 문화주택을 건설하여 농장원들이 새집들이를 하게 하였다.

우리는 새집을 받은 한성훈농민의 집에 들려보았다. 결불안이라고 살림집의 외부도 멋있지만 살림방들과 부엌, 전실, 창고 등 편리하고 쓸모있는 내부는 도시살림집 부럽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마을에는 학교와 병원, 유치원, 상점을 비롯한 공공건물이 일떠서 사람마다 마음껏 배우고 무병장수를 노래하고 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어 강안리의 밤은 깊어갔으나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우리는 차창밖으로 흐르는 강안리의 야경에 눈길을 주었다. 달빛에 드넓은 논벌이 농촌문화주택들의 불빛과 한데 어울려 안겨오고 있었다. 그 불빛들이 제나름의 기쁨과 행복한 사연들을 속삭이는듯싶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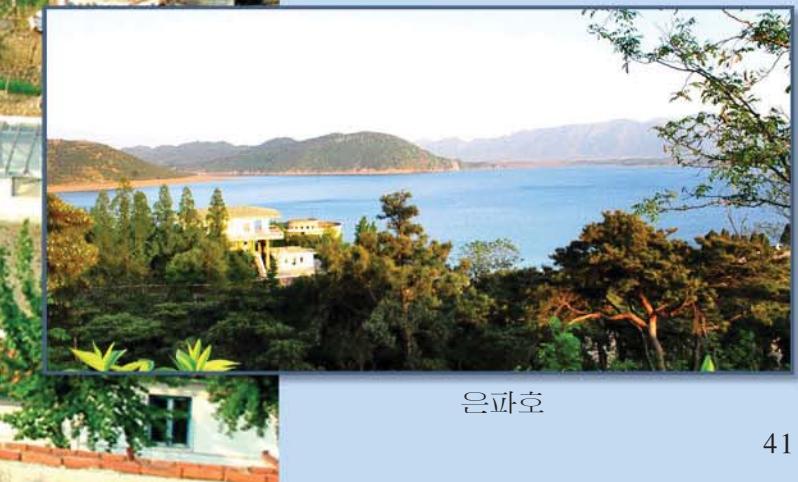
은파군서종고급중학교에서



리인민병원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검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강안상점



은파호

# 나는 조선청년이다



무릇 사람들에게는 자기나름의 자랑이 있다.

나는 비록 해외에서 태여나고 자라났지만 조국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서 성장하여왔다.

『나는 조선청년이다.』

새 세대 동포청년의 한 사람인 나는 언제나 궁지로 부푸는 가슴을 떳떳이 내밀고 조국을

바라보며 살고있다.

8월을 맞고보니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생각 할수록 감회가 새롭고 하고싶은 이야기역시 참으로 많다.

조국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또 즐겁게 보내는 청년절인 8월 28일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다주고있다.

2012년 8월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이였던 나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는 청년절경축대회에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때 내 나이는 25살이였다. 동포청년대표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리고 또 별로 한 일도 없는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과 꼭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대표증이 수여되었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너무도 크나큰 영광과 감격에 목이 메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면서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온 나라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여주시고 청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하문에서 우리의 청년절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꽂피워주신 조선청년들의 영원한 명절이라고 하시였다.

사람들은 흔히 청년들을 나라의 얼굴이라고 한다.

그만큼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사회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조국에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청년들을 언제나 아끼고 내세워주고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느라니 해외에 살고있는 평범한 동포청년인 나에게 돌려지는 조국의 사랑이 정말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지난 4월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과정을 마치였다.

희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주고 달마다 장학금도 안겨준 조국.

학위증을 수여받던 그 순간 나의 눈앞에는 잊지 못할 모습들이 떠올랐다.

해빛밝은 대학의 교실에서 나를 위해 개별강의와 론문지도를 해준 선생님들과 나의 연구사업을 도와 전자도서관을 밤늦도록 떠나지 못하면 다정한 동무들의 모습이였다. 잊지 못할 그 모습들은 그대로 조국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희망대로 경제학을 전공한 나는 졸업론문 『전자금융봉사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제는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겨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게 되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전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가 지금의 나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만족해 하겠는가.

아버지는 생전에 늘 형님과 나에게 조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면서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애국의 길에 서시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형님과 형수 그리고 나도 섰다.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조선청년들도 전진하는 조국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어나갈 때 강성국가건설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조국을 위한 애국의 한길에서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전세대들이 물려준 조국애, 민족애를 심장깊

# 고국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지난해 7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원군로병대표단 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중국 심양시의 김동휘, 영구시의 강현채, 김홍구, 박병관, 단동시의 리옥희동포들도 있었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행사에 참가하여 받은 감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동안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정부와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날에 받아안은 영광이 정말이지 꿈만 같고 너무도 분에 넘쳐 아직까지 현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항미원조보가위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선전쟁에 참전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러 우리는 고국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가느라니 신의

주를 지나 차창으로 통천, 동림, 선천, 정주, 안주, 순안 등 도중역들의 이름이 눈앞에 안겨왔다.

너무도 귀에 익은 역들이여서 우리는 그 지방역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뵈

옵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으며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최고령도자인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전승 6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비롯하여 여러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으며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차린 연회에도 초대되었다.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조선인민군의 군력, 조선의 무한대한 경제력에 깊이 감동되었고 그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더우기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창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돌아보시고 7월 30일에는 경축행사에 참가한 지원군로병대표단과 해외동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것이다.

이 기념사진은 우리의 일생의 영광이고 대를 이어 영원히 간직할 가보이다.

모주석과 주은래총리는 생전에 김일성동지께서 각 방면으로 중국혁명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시였다, 중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동지들이 흘린 피가 스며있으며 그것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하였는데 조선에

와서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였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하고보니 지금까지 말로 들어온 사실과 실지 눈으로 본 사실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조선의 경제건설은 상상외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였다. 특히 군민이 원수님을 철저히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과 지시를 결사관철하고있었다.

평양시의 환경위생은 그지없이 깨끗하고 정결하였다. 평양은 정말 아름다운 수도이며 고국은 명실공히 그 이름에도 부합되는 금수강산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부단히 강화되는 속에서도 고국은 사회주의를 지키며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고있다.

고국인민들과 김정은원수님을 자기들의 위대한 어버이로 모시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있어 그 어떤 침략자도 이처럼 강력한 국가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려하였듯이 앞으로도 중조 두 나라 인민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고국인민의 반침략, 평화옹호를 위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 할것이다.

본사기자 유선화

이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서 조국의 청년들과 언제나 숨결을 같이해나가겠다.

애국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언제나 소리

높이 자랑할것이다.

『나는 조선청년이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 리 선



## 민족료리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번에 태양절을 맞으며 고국에서 진행된 제19차 태양절료리 축전을 보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조선료리협회에서 중국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 성원들인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여 그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것이다.

사실 우리는 고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유명한 평양랜면과 김치만드는 법을 더 잘 배우기만 하여도 성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태양절료리축전장을 참관하여 많은 료리기술지식을 배우고나니 고국의 료리수준이 참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축전장에 전시된 모든 료리들이 정말 화려하고 정성껏 만들었을뿐아니라 료리를 그릇에 담은것역시 예술적이여서 조화로왔다. 우리의 눈맛, 입맛을 끌어당기는 료리들을 한아름에 안고가고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것을 사진기렌즈에 담았다.

고국에 체류한 길지 않은 날에 우리는 적지 않은 민족음식들도 직접 맛보았다.

평양고려호텔과 옥류관, 청류관에서 먹어본 평양랜면, 김치, 비빔밥은 물론이고 쉬움떡, 찰떡, 절편과 토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등 여러가지 음식들은 정말 별맛이다.

쉬움떡말이 났으니 말이지 난 그렇게 맛있는 떡을 난생 처음 먹어보았다. 우리는 조선민족음식에 쉬움떡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다. 고국에서 우리는 쉬움떡만드는 방법을 잘 배우고 그 떡도 많이 사가려고 한다.

평양랜면의 국수발이 아주 좋은데 아마 거기에는 무슨 비방이 있을것이다. 김치역시 우리가 만드는 김치와 걸보기는 같은데 고국의 김치맛이 훨씬 좋다. 평양에서처럼 진짜 김치맛을 살리려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탐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또한 감탄한것은 고국의 모든 음식들의 간이 우리 입에 꼭 맞는것이였다. 료리를 가공하면서 인공조미료도 전혀 쓰지 않고있었다. 사실 인공조미료는 음식재료의 고유한 맛을 살리지 못하게 하며 사람의 몸에도 해롭다. 역시 조선민족음식은 천연식품재료의 원맛을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한다.

모르겠다.

오늘 세계적으로 조선음식에 대한 호평이 날로 커가고있다. 특히 우리가 살고있는 연길에서 만도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조선음식을 먹고있다. 그들은 김치나 된장국이 없이는 밥술을 뜨지 못하는 정도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2006년에 중국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를 설립하였는데 정부에서도 사회단체로 공식등록하였다. 협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망라되어 있다. 회원들은 모두가 조선민족음식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식당의 사장들이다.

협회에서는 우리 민족료리를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2011년에 민족료리전문학교도 세웠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조선료리를 배우고있다. 한것은 그들이 조선민족음식은 하나와 같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으며 인체에는 더욱 좋은 건강식품이라는것을 인정한데 있다.

우리 협회의 활동목적은 조선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들과 서로 교류하며 조선문화를 지키는것이다.

나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인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도 민족음식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겠다.

앞으로 고국에 더 자주 와서 민족음식에 대해 배워가겠다.

중국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 회장 김순옥

—인상기—

## 다시 태여날수 있다면

- 다시 태여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

평양에 있는 옥류아동병원에 한번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나는 기업관계로 발전과 문명을 사랑하는 나라들과 아동병원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에게 적지 않게 가보았다.

하지만 진단치료 및 건강증진에 쓰이는 치료설비들,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종합적인 아동의료봉사기지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환자의 병진단에 쓰이는 다목적렌트겐과 종합수술장에 있는 심폐기 그리고 통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깜찍스런 유희기구들과 오락기재들, 입원실, 치료실들과 나란히 있는 교실들 지어 직승기리작록장 등은 아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부담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극하며 뜨거운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병원을 돌아보면서 나는 입원한 환자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부모들은 평범한 근로자들이였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최신식 의료설비들을 갖춘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것은 도저히 믿을수가 없는 일이다.

모든것이 동심에 맞게 꾸려져있어 찾아오는 어린 환자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옥류아동병원,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솟아난 옥류아동병원이 야말로 그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넓은 기념비적건축물이다.

중국 연길시 김영자



##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을것이다

나는 고국에 자주온다.

이번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고나니 모란봉에 세워진 해방탑에도 다시 한번 가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해방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바쳐진 쏘련군대의 위훈을 길이 전하는 기념비이다.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의 친선을 상징하는 이 탑이 세워진 때로부터 6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고국인민들은 일제와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쏘련병사들의 위훈을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 로씨야의 각곳에 세워졌던 렬사비들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허나 고국에서는 조국을 지켜 싸운 사람들의 위훈을 값높이 빛내여주고있으며 또 그들의 위훈을 전하는 비들을 잘 보존관리하고있다.

해방탑을 돌아보니 그 주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아름다운 모란봉기슭의 경치와 어울려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해방탑을 바라볼수록 고국인민이 해방탑을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아마 이전 쏘련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해방탑을 돌아본다면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을것이다.

우즈베키스딴 조선문화전통《로인》협회 회장 주영일



# 길지 않은 나날이였어도...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동포들

식당배 《대동강》호에서



지난 태양절에 즈음하여 평양을 찾아온 동포들은 속에는 김칠성 제1부위원장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과 김미숙단장이 이끄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원들도 있었다.

만수대언덕에 오른 대표단, 예술단성원들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의 마음답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이 역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들을 읊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에는 해외동포들이 이국땅에서도 태양을 따르는 마음안고 아름답게 피운 불멸의 꽃 김일성화도 전시되어 있었다.

석명손, 김칠성, 주영일, 석성, 리구율, 석미란, 김미숙, 남별…

수많은 참관자들은 재로씨야,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이 보내온 김일성화를 보면서 봄은 비록 고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태양을 따르는 진정어린 그들의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한 국제 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원들,

그들은 무용 《마식령의 메아

리》와 여성독창 《바다만풍가》, 《우린 사랑한다》를 무대에 올리였다.

지난 시기와 전혀 다른 새 모습을 보여준 그들의 작품들은 고국의 발전면모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높은 사상성과 함께 피타는 정열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련마한 예술기량으로 하여 관중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동포들은 평양의 여리곳을 돌아보며 경축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였다.

경축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보며 환희에 넘쳐 웃음을 날리던 동포들은 국가선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룽라



룡악산에서의 즐거운 한때

만수대창작사의 전시관에서



대동강畔에서





만경대고향집의 사적물앞에서

곱등어관 등을 돌아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더욱 번영할 고국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였다.

김칠성 제1부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은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우는 통약산에도 올랐으며 대동강기슭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였다. 동포들은 식당배 《대동강》호에 올라 시원한 대동강맥주를 마시며 대동강물결을 거슬러올라가면서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는 재미는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고국에서 보낸 나날은 길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깊이 자리 잡았을것이다.



국가선물관을 돌아보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참관하였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릉라도급등어관에서

## 사화

# 스승을 감복시킨 제자

김성기는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 당대 거문고음악의 실력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는 원래 음악에 뜻을 두고 서도 비천한 가정사정으로 하여 활을 만드는 궁인노릇을 하다가 뒤틀게야 스승을 만나 음악을 시작하였다.

그에게 거문고를 처음 가르친 스승은 왕세기라고 부르는 음악가였다.

왕세기는 김성기의 남다른 음악적재능을 보고 그에게 거문고를 배워줄것을 허락하였으며 제자의 연주기량을 높여주기 위하여 요구성을 높이는 엄격한 스승이였다.

김성기로서는 늦게나마 좋은 스승을 만나 그처럼 갈망하던 음악을 배우게 된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김성기의 가슴속에는 누구에게 터놓고 말못할 안타까움이 서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스승이 자기가 새로 창작하는 좋은 곡조들을 혼자서 간직하고 즐길뿐 절대로 제자들에게 배워주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된 때였다.

스승은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중에만 새로운 가락을 뽑거나 혼자서 타보곤 하였다. 제자들도 스승이 그런줄 알았으나 스승과 제자의 차이란 하늘과 땅같아서 감히 시비할수도 없었다.

음악에 대한 끝없는 향학열을 지닌 김성기는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스승이 밤중에 타는 새로운 가락을 배우고싶은 마음

을 금할길 없었던 김성기는 생각던 끝에 스승의 집 창가에 귀를 대고 그가 타는 음악을 엿듣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이를 날 아침 스승앞에서 시치미를 빼 따고 밤새 엿들은 곡조를 연주하였다.

왕세기는 놀랐다.

(어허, 피이한지고. 저 가락을 성기가 어떻게 알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스승의 머리속엔 날마다 의문표가 하나씩 더 늘어갔다.

어느날엔가는 왕세기가 밤새 창작하여 한두번 타본데 그친 곡조가 김성기의 거문고줄에서 그대로 펑겨나왔다. 그것도 음 하나, 박자 하나 틀림이 없었다. 오히려 곡조의 형상은 스승이 머리를 쥐여뜯으며 짜냈던것을 더 룽가할 정도였다.

(참, 조화로다. 저 사람은 밤마다 내 배속에라도 들어앉았다 나오기라도 하는가?)

그러던 어느날 밤 왕세기는 거문고를 한참 타다 말고 갑자기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와 동시에 문밖에서 무엇이 콩하고 대청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닐세라 김성기였다. 그는 스승이 타는 가락을 들으며 그 음을 익히느라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그만 스승이 거문고연주를 멈추고 문가에 다가오는줄도 몰랐던 것이다.

김성기는 스승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숙이였다. 그러나 제자보다 먼저 말을 뱉은 왕세기였다.

그는 《이 사람, 다치지 않았

나?》라고 하며 김성기의 두손을 잡아 일으켜세웠다.

《선생님, 버릇없이 행동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하지만 용서를 비는 제자보다 더 바빠난것은 스승이였다.

새것을 배우려는 열망이 이링듯 불같은 제자의 마음을 몰라보고 제 리속만 차리려든 자신이 부끄럼기 그지없었다.

《아닐세. 속통이 좁고 옹졸한 이 선생을 욕하게. 새것을 배우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자네속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청기와장사군같이 좋은 가락은 혼자만 알고 독차지하려 한 내가 옹졸한놈일세.》

왕세기는 제자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그후부터 왕세기는 새로운 곡조를 짓거나 얻게 되면 그 즉시로 김성기에게 배워주군 하였으며 늘 허심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대하기 위해 애썼다.

남다른 재능과 배움의 열망으로 편협하고 옹졸하였던 스승을 감복시킨 김성기.

사람들은 흔히 곡조나 그 무엇을 한두번 듣고 따라외우는 김성기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타고난 재주도 천만 공수를 들여 가꿔갈 때 더 훌륭한 재능으로 빛을 내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 \* \*

# 옛 이야기를 통해 본 바둑의 매력

저에게는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일곱살난 딸애가 있습니다.

며칠전 소학교에서 돌아온 딸애는 바둑선생님이 들려주었다는 옛이야기 하나를 저에게 해주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잘 알고있었지만 딸애의 이야기에 끌려들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동포여러분에게 민속놀이인 바둑에 대한 소개를 하려던참이였는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가 합니다.

먼 옛날 한 나무군이 나무하려 산속에 들어갔는데 이끼어린 큰 바위우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들이 앉아 바둑을 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끌려 구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선》들이 쥐여주는 신기한 산열매로 요기를 해가면서 보기에 열중하던 그는 바둑의 오묘한 변화에 심취되어 어느덧 나무하려 까맣게 잊고말았습니다.

《아직도 가지 않고 구경하고 있느냐?》

한 《신선》이 나무군을 질책했습니다.

그때에야 나무군은 자기가 나무하려고 산에 올라왔다는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옆에 놓았던 도끼를 찾아들자고 보니 아니글쎄 도끼는 이미 녹이 쓸고 자루도 역시 썩어있었습니다.

서둘러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가보니 자기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변한 마을에는 알아볼만 한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둑이란 어떤 놀이인가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바둑이란 두 사람이 마주앉아서 한 사람은 흰돌을, 다른 한 사람은 검은돌을 가지고 그것을 판우에 서로 엇바꾸어놓으면서 잡기내기를 하여 땅(집)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지능놀이, 두뇌경기입니다.

바둑판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가로세로 42cm×45cm의 장방형입니다.

판우에는 가로세로 19줄의 선이 그어져있고 그 사점점은 361개입니다. 이밖에 9줄, 13줄짜리 등 축소판도 있습니다.

판우에는 9개의 흑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준점으로서 방향과 위치를 가늠하는데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바둑돌은 검은것이 181개, 흰것이 180개 모두 361개로서 선의 사점점의 수와 같습니다.

바둑의 역사는 수천년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일찌기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문화와 함께 발생발전하여온 바둑은 고조선시기에 지능



우리 선조들이 바둑을 두는데 대한 옛그림

## 상식

### 《조보》

《조보》는 조선봉건왕조정부에서 발행된 내부통보문로서 《기별지》 또는 《저보》라고도 불리웠다.

우리 나라 중세봉건사회에서 봉건통치배들은 자기들의 통치질서를 유지강화하는데 필요한 한계안에서 내부통보물을 발간하여 봉건관리들속에 보급하였다. 조선봉건왕조 사회에서 수백년동안에 걸쳐 거의 매일 발간된 《조보》는 오늘날의 신문과는 먼거리에 있었으나 그 내용과 발간형식

에서 신문적요소를 어느정도 체현하고있었다.

《조보》에는 국왕의 결재사항, 판제의 변동, 관리의 조동, 국왕의 정사, 과거시험날자, 궁중안의 거동을 알리는 자료 등이 많이 실리였다.

《조보》에는 또한 중앙의 각 관청과 지방관들로부터 보내온 보고, 신하들이 국왕에게 제기하는 상소문, 충신령녀에 대한 표창 등의 자료들이 실렸다. 그리고 지방의 농



바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민속놀이의 하나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원시문화와 함께 첫 걸음을뗀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바둑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 고유한 조선말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봉건의 유타리속에서 량반들과 특권층들이나 두던 바둑이 20세기초에 일반사람들속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자기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지역과 시간과 언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능경기로 되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둑애호가는 약 7 000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둑의 특징과 유익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전략과 전술의 다양성, 전투환경진행의 극성 등으로 하여 바둑은 세계에 널리 사랑할수 있

는 지능체육의 한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바둑은 다른 오락에 비하여 놀이의 내용이 각별히 고상하고 째여있으며 정서가 풍만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장기 천수에 바둑 만수》라는 말과 같이 수가 많고 다양하며 폭이 또한 넓고 깊습니다.

한 바둑전문가는 바둑을 가리켜 입학하기 쉽고 일정한 수준까지는 진급도 비교적 힘들지 않지만 졸업할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지적경기라고 하였습니다.

바둑을 배우게 되면 그 과정에 철학적이고도 론리적이며 수학적인 사고력 등을 키우게 되며 바둑의 원리들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체득할수 있게 됩니다.

그 틀과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독특하고

도 기발한 수를 찾아내는데 바둑의 묘미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둑을 즐기게 되면 자연히 겸손하고도 고상한 품성을 갖추게 됩니다.

바둑을 하는 사람들속에는 80살이상되는 장수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둑이 정신, 육체적 피로를 회복할뿐아니라 활발한 대뇌피질의 활동으로 로화를 방지하며 따라서 장수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기때문입니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두뇌놀이에도 비할수 없는 최고의 지적오락경기라는데 바둑의 매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을 보고계실 바둑애호가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펜을 놓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사형편파 기상관계자료, 큰물피해, 화재, 폭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들, 외교, 군사관계자료들도 실리였다.

이것은 《조보》가 보도적이며 선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조보》의 독자는 중앙의 정승, 유품관서로부터 지방의 관찰사, 군수에 이르는 관리들이였다.

《조보》의 발행력사에서 특기 할 사실의 하나는 1577년 가을에 있은 《인행조보사건》이다. 그것은 서울에서 실직자들 30여명이 모여 이해 8월에 봉건정부의 해당 부서인 사헌부의 승인을 받아 수개월동안 《조보》를 인쇄 발행하여 자유판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국왕에

게 알려져 그 이듬해 1월에 관계자들이 모두 엄벌을 받게 된 사실이였다. 이 사건은 《조보》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선전수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봉건통치 층내부에 국한된 내부통보물이었으며 봉건군주의 엄격한 보도관제가 대중보도수단의 간행을 허용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보》는 1894년 11월까지 계속 발행보급되었다.

《조보》의 편집내용은 그후 《판보》와 근대신문들의 국내보도에 이어졌다.

\* \* \*

# 우리 나라의 산줄기들

우리 나라의 산줄기들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지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남해가의 구재봉(경상남도 하동군)까지 뻗어 있는 산줄기의 이름을 백두대산줄기라고 부른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두류산을 지나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진 백두대산줄기는 백만년전에 형성되었다.

길이는 무려 1 470km로서 3 670여리나 되며 3 600여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80여개의 크고 작은 산줄기들이 나무 가지마냥 뻗어내려 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선조들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를 하나의 산줄기로 정하고 그것을 백두대간이라고 불렀으며 조선의 모든 산들이 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려 백두산을 산악의 조종이라고 일컬었다.

백두대산줄기에 속해 있는 기

본산줄기들은 백두산줄기, 부전령산줄기, 북대봉산줄기, 마식령산줄기, 칠령산줄기, 태백산줄기, 소백산줄기, 지리산줄기이다.

가지산줄기들로는 마천령산줄기, 만풍산줄기, 새덕산줄기, 례봉산줄기, 계방산줄기, 남원산줄기, 무등산줄기, 랑림산줄기, 차령산줄기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산줄기들은 일반적으로 북동-남서방향과 북서-남동방향으로 뻗어 있다. 북동-남서방향의 산줄기들은 함경산줄기, 적유령산줄기, 묘향산줄기, 소백산줄기 등이고 북서-남동방향의 산줄기들은 랑림산줄기, 태백산줄기 등이다.

산줄기들에는 묘한 벼랑들과 폭포, 깊은 골짜기와 맑은 물, 울창한 수림 등이 서로 잘 어울려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묘향산, 금강산을 비롯하여 경치 좋은 곳들이 많

으며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하여 생긴 룽문대굴, 송암동굴 등의 지하명승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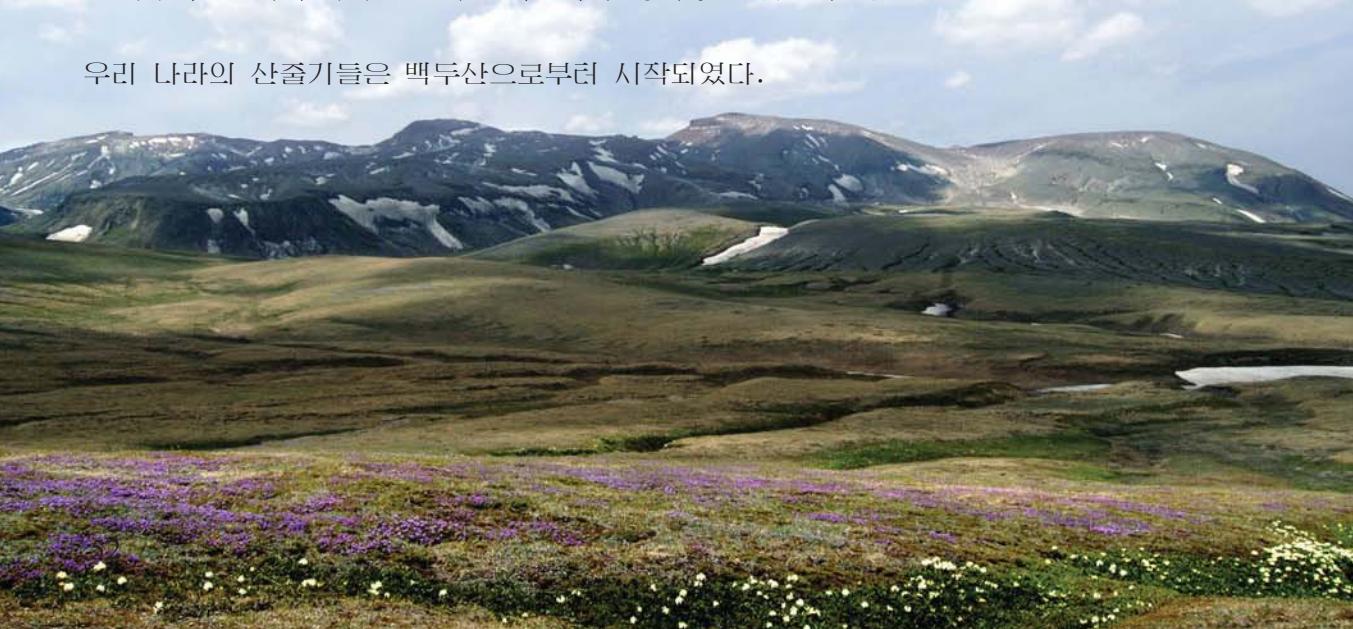
그리고 연, 아연, 니켈, 철, 금, 흑연을 비롯하여 많은 지하자원들이 묻혀 있고 산림자원과 약초, 산파일 등이 많다. 이외에도 노루, 곰, 산양, 사향노루, 오소리, 너구리 등 산짐승들도 많다.

백두대산줄기는 우리 나라 척량산줄기이다. 척량산줄기는 해당 나라 지세의 척추(등마루)로 되는 산줄기로서 기본 산줄기를 말한다.

이렇듯 우리 국가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시작된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강토이며 우리 민족은 한강토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한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의 산줄기들은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09 화

## 릉라도에서 있은 무파과거시험

임금은 류무사에게 가족래력과 출신도를 따져묻다가 그가 함경도출신이라고 말하자 대노하였다.

《네 이놈, 평안도밖의 출신이 응시할 경우에는 참형에 처한다는것을 몰랐는가?》

《알고있었나이다.》

《알고도 응시했단 말이냐?》

《저는 비록 함경도출신이오나 평양 대성산 무술터에서 무사로 되었사오니 오늘 전하께서 평양성의 무술을 보려 하시는데 제 어찌 한목숨 아껴 나서지 않을수 있겠나이까!》

《그래, 참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느냐?》

《저를 가르치신 박도사께서는 무사가 되려면 무술과 전법보다도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칠 줄 아는 희생성을 지녀야 한다고 가르치셨나이다.》

《희생성?》

《하기에 소인은 이제 죽는다 해도 한이 없나이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류무사의 두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내 오늘에야 진짜 무사를 보는구나!》 하고 감탄하고나서 그를 장원급제로 등록케 하고 표창하였으며 무관으로 등용하였다.

무파시험에 있는 뒤에도 박도사는 계속 대성산에서 수많은 무사들을 키워냈다.

\* \* \*

유모아

## 귀가 서로 통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 귀가 서로 통했어요.》  
《허튼소리, 귀가 어떻게 통한단 말이냐?》  
《허튼소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는 공부시간에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린대요. 귀속이 서로 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흘러나가겠어요.》

# 왕성탄을 지킨 박다지

박다지의 본이름은 박역이야. 역이 지혜가 많다고 하여 《다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박다지는 임진조국전쟁때 평양성을 지켜싸운 평양의 열장사들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지혜로써 많은 공적을 이루한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왕성탄을 지킨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1592년 6월 대동강 건너편에 왜적들이 기여들자 평양성의 군사와 의병들은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우선 적들이 건널 수 있는 대동강의 여울목인 왕성탄을 지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의 열장사들은 왕성탄을 지키게 되었다.

장사들은 적을 막아 싸우기 위한 준비가 채 갖추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박다지에게 의병부대를 데리고 먼저 가서 여울목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고충경, 김자택, 현수백 등 다른 장사들도 성안에서 화살과 창, 칼을 준비해 가지고 박다지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이찌된 일이라.

먼저 간 박다지는 왕성탄의 여울앞에 진을 치는것이 아니라 그 아래 강물이 깊은 기슭에다 기발을 끊고 흥장을 만들고 있었다.

《여보게 박형, 우리가 지켜야 할 왕성탄은 여기가 아니라 저 웃쪽이란 말이요.》

《아니, 평양사람인 내가 왕성탄이 어딘지 모를가봐?》

《그럼 왜 여기다 진을 치는 거요?》

성미가 날카로와 누구앞에서나 할 말을 하고야만다고 《당돌》이라는 별명이 붙은 현수백이 박다지에게 성급히 따졌다.

그러나 박다지는 평시에 봉을 잘하던 그 배포유한 태도로 태연히 대답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겠기에 여기에 진을 치는거야.》

그러는데 《왜적이 나라났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파연 대동강 맞은편 동뚝아래쪽에서 뾰얀 먼지를 일으키며 수백을 헤아리는 왜적들이 몰려 올라오고 있었다.

평양성의 장사들은 왕성탄으로 진을 읊기지 못한채 박다지가 친 진에서 적과 싸울 태세를 갖추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적들이 자기들의 앞을 지나 왕성탄쪽으로 오르지 않겠는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히도 적들은 그들의 맞은편에 이르러서는 더 올라가지 않고 기발이 나붓기는 이쪽 진을 향하여 조총을 쏘아댔다.

이에 대응하여 의병들은 박다지의 지휘에 따라 적들을 향해 화살을 날리였다. 적들도 악소리를 치면서 조총을 더욱 요란하게 쏘아댔다.

그러자 박다지는 화살을 좀 적게 날리면서 강을 넘기지 말고 강복판쯤에 떨어지게 하라

고 하였다. 마치 적들의 사격에 겁을 먹고 기세가 죽어가는듯이 보이자는것이였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왜적들이 일제히 강물에 뛰여들더니 악을 쓰고 헤엄쳐왔다.

적들의 무리가 거의나 깊은 강물에 들어섰을 때 박다지는 전체 의병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하게 하였다.

왜적들은 비발처럼 떨어지는 화살을 피할길 없이 한놈두놈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강복판에도 이르기 전에 죽어 강물속으로 가라앉는자가 수두룩해지자 뒤따르던 적들은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나 그것은 몇이 안되었다. 드디여 전투는 의병들의 승리로 끝났다. 의병들은 승리의 함성을 높이 울리였다.

박다지가 정신없이 《만세!》를 부르는 현수백의 어깨를 치며 말하였다.

《자, 보았지? 적들도 우리가 꼭 여울목을 지키는줄로만 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야 어찌 지키지 않는 여울목을 두고 우리가 지키는 깊은 물목으로 뛰여들었겠나? 하하하…》

《그러니 이번에도 적들이 박다지의 지혜에 걸려들었군. 하하하…》

의병들과 장사들은 왜적들을 죽친 박다지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통쾌하게 웃었다.

\* \* \*

# 과연 미국이 《인권재판관》 인가

몇 해 전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병사 네명이 세 구의 아프가니스탄인포로시체에 둘러서서 오줌을 싸면서 야비한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반미기운을 폭발시킨 사건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인간은 인간에게 승냥이이다.》라는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변태적욕망, 말세기적인 사고방식이 지배되는 미국이고 보면 일개 병사나 국가기구나 할것없이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 야만적인 취급과 살륙을 생존방식으로, 《락》으로 삼는 것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온갖 인권유린범죄의 발상지인 미국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야만들, 피에 주린 승냥이들이 서식하는 악의 소굴이다.

그러나 가소로운것은 이러한 야만들의 국가,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세계 《인권재판관》 노릇을 제 스스로 하고있는것이다.

조선속담에 《삶은 소대가리 웃다 꾸레미 터질일》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이 돌아대는 꼴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국제사회는 미국에 《인권재판관》의 모자를 씌워준 일도 없고 특권을 준 일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찍하면 인권옹등이를 내휘두르고 해마다 《년례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을 비방중상하고있다.

국제인권무대에서 타고난 《재판관》 행세를 하



미국에서 당국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는 미국의 꼴은 볼수록 역스럽다. 인권에 대하여 말할 쳐지도 못되는자들이 《인권의 화신》처럼 놀아대면서 호령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미국이 늘어놓는 《자유》와 《민주주의》타령을 곧이 들을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

이러한 미국이 지난 3월 우리 조국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민주주의모델이 못된다》느니, 《의심이 간다》느니 하면서 선거결과까지 함부로 시비질하였다.

미국이 공화국에 대해 《악의 나라》라는 망발을 쥐치면서 《인권》나발을 불어댄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불량배국가》니, 《악의 축》이니 별의별 혐담과 훼방으로 공화국을 헐뜯어온 미국이였다.

미국은 이미전에 공화국의 《인권문제》해결이 《자유세계의 기본목표의 하나》이라고 떠벌이면서 저들의 음흉한 속심을 드러낸바 있다.

미국이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인위적으로 날조하고 국제적으로 여론화, 정치화하기 위하여 날뛰고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맡은 바른대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는 미국이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사회인 공화국을 헐뜯는것은 양천대소할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에서는 매해 종기류에 의한 폭력으로 3만여 명이 사망하고 20만여명이 부상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2분당 1명이상씩 그 피해자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해마다 130만명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있다. 현재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5명중 1명이 성폭행피해자들이라고 한다.

미국은 제 처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중뿔나게 코를 들이밀지 말고 저희 나라의 인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시키지도 않은 《인권재판관》 노릇을 하는 미국의 주제넘은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권》타령으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일뿐이라는것이다.

# 누가 기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지금 미국은 《북조선의 핵 위협이 조선반도의 재앙이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역사와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주체39(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같은 날 미 전략항공대에는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 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후에는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

주체41(19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하여야 할것이다.》라고 하였다.

미국의 핵공갈로 조선반도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한가족이 수십년세월 북과 남에서 갈라져 살게 하는 비극을 낳았다.

전후에도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해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그 수는 1970년대에 1 000여개, 1990년대에는 1 720개를 넘어서다. 하여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실지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에 써먹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주체58(1969)년 《포커스 페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수십여년동안 감행되었다.

한편 미국은 공화국이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가중되었다. 부쉬행정부시기에 와서 그것은 극도에 달하였다. 부쉬는 대통령자리에 앓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시기에 채택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뿐 아니라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제창한 현 미행정부도 공화국을 핵무기불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로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있다. 지난해 100여발의 핵탄을 탑재한 초대형 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비롯하여 대량적인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과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소동을 강행한 미국은 올해 들어와서도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미국은 올해벽두부터 그 누구에 대한 《옹징》이니, 《격멸》이니 하면서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을 부추기며 광란적인 군사행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남조선에 핵추진잠수함과 《B-52》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남조선피뢰들과 함께 《평양점령》을 기본목표로 하는 《쌍룡》훈련과 《키 리졸브》, 《독수리》등 핵전쟁연습을 벌리였다. 이 연습은 그대로 하늘과 땅, 바다, 우주공간, 컴퓨터망, 인간의 정신심리분야까지도 전장으로 정한 종합적인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였다.

공화국의 《핵위협》과 《도발》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를 노린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하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파연 《핵위협》과 《도발》에서 누가 기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본사기자 조선일

고화

## 《생각에 잠겨》

조선화 《생각에 잠겨》는 강희안(1417-1464년, 자: 경우, 호: 인재)의 그림이다.

그는 집현전 직제벼슬을 지냈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참가한 학자였다. 그는 시짓기와 글씨쓰기, 그림그리기 등에 모두 뛰어나 《시서화3절》이라고 불리웠으며 안면, 리상좌와 더불어 15~16세기 3대화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였다.

이 그림은 활짱을 끼고 바위에 엎드려 턱을 고인채 막고 잔잔한 물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인물의 모습을 그린것이다. 뒤에는 먹물을 듬뿍 찍어 그은 깨아지른듯 한 절벽이 솟아있고 굵직한 덩굴풀이 시원스레 드리워져 있다. 인물을 중심으로 절벽과 풀과 바위와 물이 빈틈없이 어울려 하나의 화폭을 이루었다.

당시 량반계급이 지니었던 현실생활과 멀어진 목가적인 정서와 허무한 심리세계가 담겨져있는 제한성은 있지만 높은

기량으로 현실을 함축하고 집중한 그림인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는 작품이다.

\* \* \*





청학사슴목장의 여름

본사기자 홍 훈

조국땅 그 어디나 그리하듯 라선시의 청학동에도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한데 어울린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다. 거기마다 사슴떼까지 흐르니  
산천경개의 조화로움이 제일인듯 하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1- 482138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